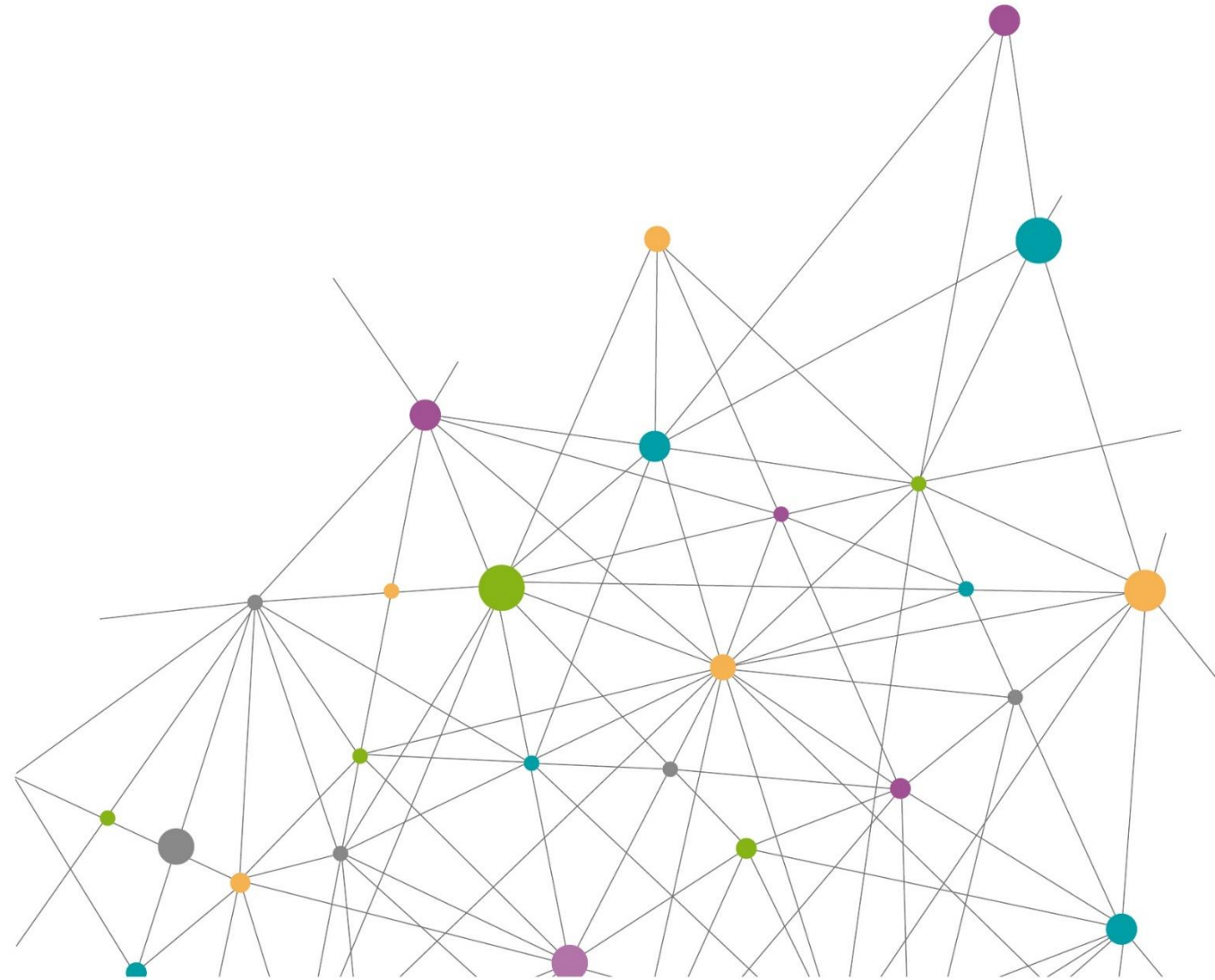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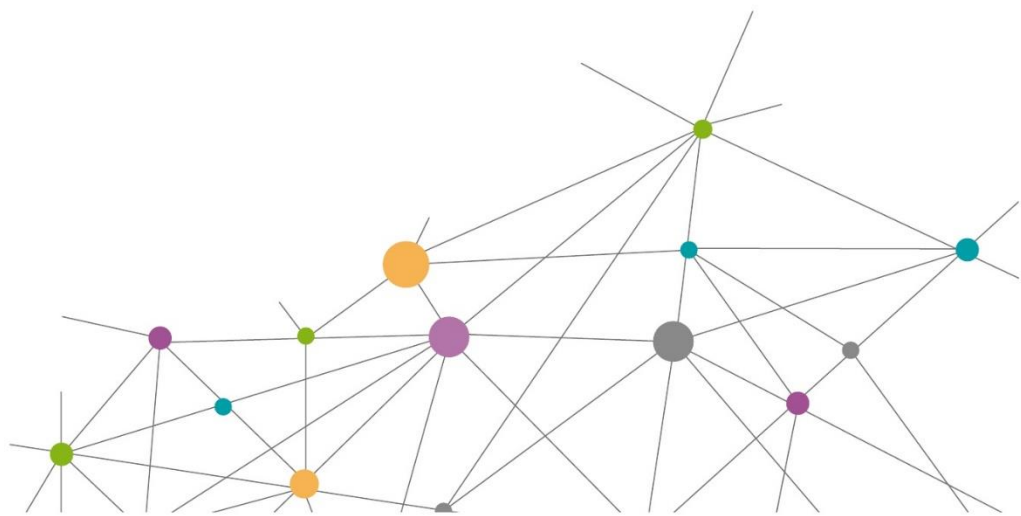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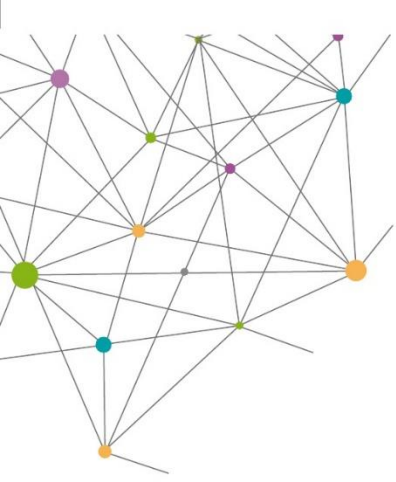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2025. 11. 30.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제 출 문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귀하

본 연구물을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주)하루의축 대표 우지연

연구에 참여한 분들

주관기관 (주)하루의 축

책임 연구

우지연 (주)하루의 축 대표

공동 연구원

최혜자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연구 보조

추일범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장은선 하루의 축 사업팀

손지영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황연심 (주)문화디자인자리 경영지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프로그램 기획위원

김경희	전)문화도시영월 센터장
김선애	다정해도 대표
김유선	산아래 문화학교 대표
박미숙	별책부록 대표

그룹 인터뷰 참여자

김도형	영월(주천)도시재생센터
김상범	나누리미디어 대표
린평란	영월군가족센터
김현진	사소한기록소 협동조합
배은정	바느질하는 화이트그린
신희정	시민강사
임화옥	마을선생님 협의회
황소연	마을선생님 협의회

설문조사원

김현진	사소한기록소 협동조합
배은정	바느질하는 화이트그린
신희정	시민강사
엄정미	청포도연극마을 단장
윤지혜	사소한기록소 협동조합
이셋별	시민추진단 문화크리에이터
채희정	주식탐구생활 대표
최연조	영월 로컬콘텐츠랩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범위와 방법	5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9
II. 문화다양성과 영월군	11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13
2. 영월군 도시 현황과 영월군민의 삶에 관한 인식	24
3. 영월군민과 문화다양성	55
III. 영월형 문화다양성 사업과 지표 개발	65
1. 문화다양성 기반 도시를 위한 영월군의 접근	67
2.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72
3. 문화다양성 지표체계와 인식조사	77
IV. 2025년 영월군민 문화다양성 인식 및 의식 조사 결과	83
1.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실시	85
2. 조사 결과	89
3. 영월군 2025년 문화다양성 지수 도출과 시사점	103
V.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109
1. 영월군의 도시전략의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111
2.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정례화	113
참고문헌	117
부록	121
1.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양식	123

표 목 차

<표 I-1> 문화다양성 의견 수렴 FGI 일정	7
<표 I-2> 문화다양성 시범 워크숍 일정	8
<표 I-3> 영월군민 대상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9
<표 II-1>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접근 관점	13
<표 II-2>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유형	17
<표 II-3> 문화다양성 지표 관련 선행연구	17
<표 II-4>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18
<표 II-5>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개요	19
<표 II-6>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개요	20
<표 II-7> 김해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개요	21
<표 II-8> 문화다양성 지표 선행연구 주요 내용	22
<표 II-9> 영월군 행정구역의 주요 변화	25
<표 II-10> 영월군의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2025.8 기준)	26
<표 II-11> 최근 5년간 영월군 읍면별 인구 추이	27
<표 II-12> 강원도 시·군별 평균연령 현황(2025.8 기준)	27
<표 II-13> 영월군 행정구역별 평균연령 현황(2025.8 기준)	28
<표 II-14> 강원도 시·군별 고령인구 현황(2025.8 기준)	29
<표 II-15> 영월군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현황(2025.8 기준)	29
<표 II-16> 강원도 및 영월군 외국인 주민 현황(2024년 기준)	31
<표 II-17> 강원도 및 영월군 유형별 외국인 주민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31
<표 II-18> 최근 5년 간 영월군 다문화 가구 변화	31
<표 II-19> 강원도 및 영월군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현황(GRDP, 당해년 가격 기준)	32
<표 II-20> 강원도 및 영월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2023년 기준)	32
<표 II-21> 영월군 사업체 규모(2023년 기준, 단위 %)	32
<표 II-22> 영월군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2023년 기준)	33
<표 II-23> 강원도 시·군내 고용동향(2025.1/2 기준, 단위: 천 명. %)	33
<표 II-24> 영월군 2025 군정 운영 방향	35
<표 II-25> 최근 5년간 영월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세입과목 개편후, 단위:%)	35
<표 II-26> 영월군 조직별 예산 현황(본청 기준, 단위:천원)	36
<표 II-27> 영월군 문화 분야 주요업무계획_문화관광 분야	36
<표 II-28> 영월군 문화관광 관련 조례	37
<표 II-29> 영월관광문화재단 전략과 과제	38
<표 II-30> 영월문화관광재단 부서별 주요업무	39
<표 II-31> 영월문화관광재단 예산 (단위: 천원)	40
<표 II-32> 영월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41
<표 II-33> 영월문화도시센터 세부업무	41
<표 II-34> 영월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42
<표 II-35> 영월군 문화재 수	43

<표II-36> 영월군 축제 및 문화행사 현황	44
<표II-37> 영월군 관광활성화 지수	44
<표II-38> 영월군 관광활성화 지수 지표	45
<표II-39> 강원도 예술활동증명 현황 (2025.09.22. 기준)	45
<표II-40> 여가생활/활동 만족도	47
<표II-4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47
<표II-42> 안전 환경 및 지역사회 안전 평가	47
<표II-43> 일반인에 대한 신뢰	48
<표II-44> 삶의 만족감과 정서 경험	48
<표II-45>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48
<표II-46> 지역 거주 기간	49
<표II-47> 지역 정주의사	49
<표II-48> 거주 지역 소속감	49
<표II-49>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50
<표II-50> 외국인에 대한 인식	50
<표II-51>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51
<표II-52> 인구 유입 방안	51
<표II-53> 사회조사에서 인구 유입 방안에 관한 관점 변화	51
<표II-54> 영월군 대표 관광지	52
<표II-55> 관광 활성화 방안	52
<표II-56> 그룹인터뷰 개요	55
<표II-57> 그룹인터뷰 대상자	56
<표III-1> 영월군 도시 특성 도출 과정	67
<표III-2> 문화다양성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68
<표III-3> 영월형 문화다양성 2개 사업	68
<표III-4> 영월군 행정구역별 인구, 평균연령, 고령화 비율(2025.8 기준)	71
<표III-5> 영월군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의 1차적 역량 배치	71
<표III-6> 시범 워크숍 참여자 만족도(5점 기준)	76
<표III-7> 시범 워크숍 참여자 성과 인지(복수응답)	76
<표III-8>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대상 영역	77
<표III-9>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있는 조사 영역	78
<표III-10>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조사 내용	79
<표III-11>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소수성	79
<표III-12>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응답방식	80
<표III-13>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및 인식조사	81
<표IV-1>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86
<표IV-2>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개요	87
<표IV-3> 5점 척도 문항의 결과도출 방식	88
<표IV-4> 응답자 특성 종합	91
<표IV-5> 문화다양성과 소수성의 관련 정도와 차별 방지의 필요성	93
<표IV-6> 문화다양성 가치에 관한 중요도	94

<표IV-7> 소수성 집단에 대한 존중도	95
<표IV-8>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관한 수용도	98
<표IV-9> 차별적 경험 사례 유형	99
<표IV-10> 문화다양성 제약 요인	100
<표IV-11> 영월에서 문화다양성 경험 기회 충분 정도	101
<표IV-12> 영월군에서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방안	102
<표IV-13> 영월군 2025년 문화다양성 인식 종합 결과	104
<표IV-14>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비교(국적 지역, 장애, 성소수자)	106
<표V-1> 영월군이 고려해야 할 도시유형	111
<표V-2>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과 활용	113
<표V-3>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활용	114
<표V-4> 문화다양성 지표 주요 보완 방향	114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의 프로세스	6
(그림 I -2) 문화다양성 의견 수렴 FGI 모습	8
(그림 I -3) 문화다양성 개별회의와 시범워크숍	8
(그림 II-1) 도시 형성의 기반	13
(그림 II-2)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공간의 경과	15
(그림 II-3) 영월군 강 지도	25
(그림 II-4) 영월군 접경지역	25
(그림 II-5) 영월군 면적 지도	25
(그림 II-6) 영월군 인구 추이(내국인)	26
(그림 II-7) 영월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5.8 기준)	28
(그림 II-8) 영월군 청년인구 추이(2024 기준)	29
(그림 II-9) 영월군 청소년 인구 추이(2024 기준)	30
(그림 II-10) 영월군 연도별 1인 가구 추이(2024년 기준)	30
(그림 II-11) 영월문화관광재단 조직도	39
(그림 II-12) 강원도관광문화촌 생활관/ 캠프체험관	44
(그림 II-13) 영월군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45
(그림 II-14) 문화행사 관람률	46
(그림 II-15)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46
(그림 II-16) 자원봉사 전체 참여율	50
(그림 II-17) 그룹인터뷰 모습	55
(그림 III-1) 영월군 도시 전략으로서 인구와 관광 이슈	69
(그림 III-2) 영월군의 문화적 노력	70
(그림 III-3) 영월문화도시의 모델	70
(그림 III-4)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과 마을워크숍 연계과정	72
(그림 III-5)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73
(그림 III-6) 1차 시범워크숍 모습	74
(그림 III-7) 2차 시범워크숍 모습	75
(그림 IV-1) 설문조사 사전 워크숍 모습	87
(그림 IV-2) 응답자 성별 분포	89
(그림 IV-3) 응답자 연령 분포	89
(그림 IV-4) 응답자 직업	89
(그림 IV-5) 응답자 영월정주기간	90
(그림 IV-6) 응답자 주요생활지역	90
(그림 IV-7)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92
(그림 IV-8) 귀하가 생각했을 때,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92
(그림 IV-9)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문화다양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받지 않을 의식과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3
(그림 IV-10)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나"와 "영월군"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4
(그림 IV-11) 귀하는 자신이 아래와 같은 사람의 배경이나 사정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5

(그림IV-12)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옆집에 살아도 된다)	96
(그림IV-13)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친구가 될 수 있다)	97
(그림IV-14)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97
(그림IV-15)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배우거나 이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98
(그림IV-16)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차별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99
(그림IV-17) 귀하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그림IV-18) 귀하는 영월군에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을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1
(그림IV-19)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1
(그림IV-20) 영월군 2025년 문화다양성 인식 지수 분석 결과	103

I

연구개요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사는 방식의 변화

- 국가 중심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던 시대는 사회 구성원이 전형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구성함.
-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개인의 삶과 일상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현대사회의 개인(a person)은 '동질적 시민' 혹은 '전형적 시민'이 아닌, '고유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individual person)로 등장하고 있음.
- '개별적 존재'란 각각의 고유의 서사와 정체성의 담지자를 의미하며, 현대사회는 존재의 다양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전통적 산업 기반의 사회가 아닌, 디지털 기반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어 사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급격한 사회변화는 개인과 집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에 각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충돌 또한 점점 잦아지고 있음.
- 이는 사회적 공론과 공동체적 가치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합의'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 사회구조의 변화는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인권 기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이 작동함.
- 이러한 관점의 토대는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과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으로부터 출발함.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제공하였다면, 「문화다양성선언」은 문화를 단순한 예술적 향유를 넘어 기본적인 인권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함.
- 우리나라도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세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음.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 현대의 도시는 존재의 다양성이 밀집된 공간이자 끊임없이 새로운 개별성이 발견되는 공간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공동체의 해체와 형성의 반복을 통해 지속됨.
- 이에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지목함.
- 특히 '지역'은 시민과 시민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 최단 거리에서 일어나는 장소로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2018년 추진된 문화도시정책은 문화다양성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문화도시가 개인의 삶을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 실현과 도시의 미래 전망에 관한 탐색과 실험을 추구하기 때문임.
- 흔히 문화다양성을 다룰 때, 다수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적 존재들의 불확실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수용자와 대상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성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영월군에서의 문화다양성 중요성

- 영월군은 천혜의 자연을 기반한 농산어촌의 특성을 가진 소도시로, 전통산업의 쇠퇴,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 특히 과거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던 석탄산업의 쇠락과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영월군의 도시 활성화 전략은, ① 청년인구 유입, 관계 인구 확대 등과 관련된 인구전략과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따라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귀농 귀촌자 등의 중장기 이주자와 관광이나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해 드나드는 다양한 관계 인구의 문화융합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20년부터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도시의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하는 실험이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영월군은 문화다양성 증진의 필요성과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시점임.

2) 연구의 목적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개발

- 영월군은 인구·관계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시 전략에 따른 문화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에서, 소도시이자 그 속도가 평균 이상인 영월군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에 비해 개인의 영향력이 주변 환경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중장기 이주자와 다양한 관계 인구가 공존하고, '넘나드는' 인구 순환의 활성화가 영월군의 지속가능성의 근거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영월군의 도시 현황과 군민의 인지를 토대로 한 지표로 실질적인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증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영월군의 문화감수성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

- 영월군의 도시 활성화 전략인 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상황과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음.
- 외부 자원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나, 내부의 활력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순환지로서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음.
- 또한, 도시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이 되는 주민과 각종 유관기관의 문화감수성 증진과 관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민 참여형 문화다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군민의 문화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 역량의 강화는 산업 유산, 역사문화, 자연 자원, 박물관 자원 등 영월군의 문화적 잠재력을 재해석하고, 도시 회복과 미래 성장 자원으로 발달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영월군민의 문화감수성과 개방성 강화를 통해 정주 매력과 관광 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이 요구됨.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25년 9월 23일 ~ 2025년 11월 28일

■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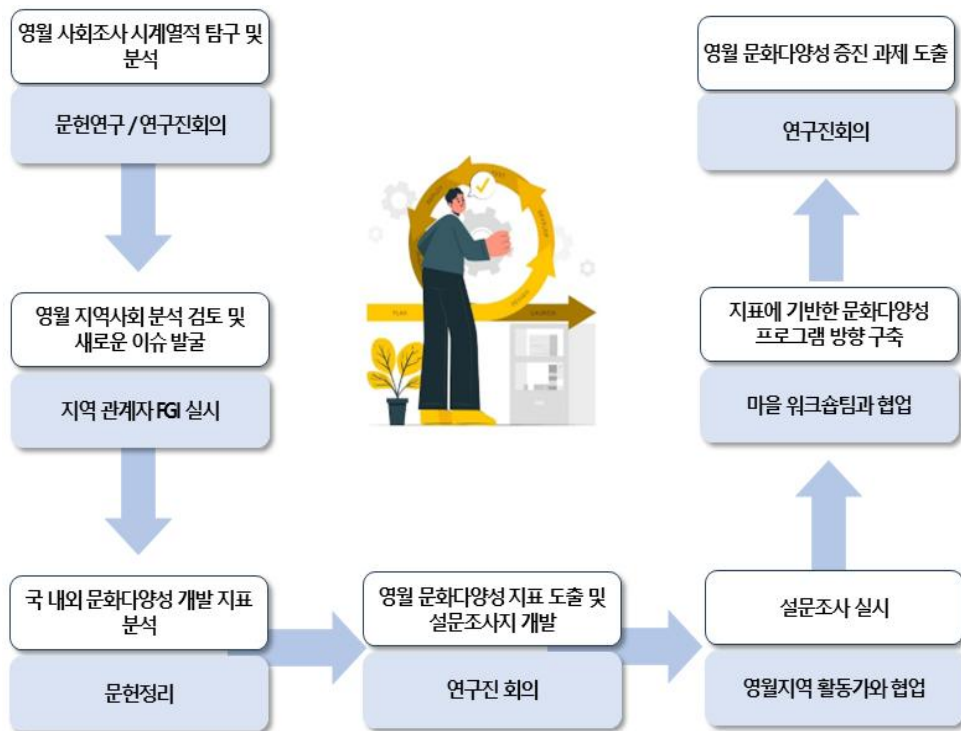
- 강원도 영월군 관내

■ 내용적 범위

- 영월군 사회조사의 시계열적 분석으로 영월군민의 사회·문화 의식 분석
- 영월군민의 문화다양성 의식을 조사하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 영월군민 문화다양성 의식 설문조사로 현재의 문화다양성 의식 지수화
- 영월군민의 문화다양성과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마련 개발
-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공무원 대상 시범 워크숍 운영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도시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

2) 연구 과정

■ 연구 과정



(그림 I-1) 연구의 프로세스

■ 마을 워크숍과 협업

- 영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결과를 토대로 현장 운영팀과 협업하여 과정과 결과 공유
- 프로그램의 보안을 통해 영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보안

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영월군 도시 환경 분석

- 2018년~2024년 영월군) 영월군 사회조사 보고서
- 2023년 영월군) 영월군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24년 영월군) 2035년 영월 군기본계획
- 2024년 영월군) 영월군 통계연보
- 2024년 강원도) 강원도 통계연보
- 영월군청 홈페이지 내 군민제안, 민원·소식, 참여·소통, 문화·관광
- 기타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 홈페이지 내 영월군 통계

- 영월문화도시 기본 자료 분석

- 2022년 영월문화도시 조성계획
- 2023년~2024년 영월문화도시 추진 결과보고서
- 영월문화도시 블로그

- 문화다양성 사례 분석

- 2013년 문체부)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기초연구
- 2015년 문체부) 문화다양성지표조사연구
- 2018년 문체부)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 2024년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2018년 강원연구원)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 2018년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 2018년 서울연구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 2020년 서울연구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 2022년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다양성실태조사보고서
- 2021년 세종시) 세종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의견 수렴 (그룹인터뷰)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주요 이슈 및 과제 발굴을 위한 FGI 실시
- 문화도시 참여자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자 구성, 설문조사원으로 연계

<표 I-1> 문화다양성 의견 수렴 FGI 일정

일시	구분	대상	인원
10월 28일	1차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	4명
10월 28일	2차	영월문화도시 연계 기관, 협력기관/단체 관계자	4명



(그림 I-2) 문화다양성 의견 수렴 FGI 모습

■ 영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 영월군 특화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기획
- 지역 오피니언 리더 중심 시범 워크숍 운영 (2회)
- 시범 결과 보완 후 마을 단위 프로그램으로 확장

<표 I-2> 문화다양성 시범 워크숍 일정

구분	일시	대상	인원
1차	11월 6일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 영월문화도시 협력 기관 담당자 영월문화도시 활동가	15명
2차	11월 13일	영월군 문화관광과 공무원 영월문화도시센터 직원	14명



(그림 I-3) 문화다양성 개별회의와 시범워크숍

■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 영월군 도시 과제 중심의 문화다양성 지표 설계
- 추적 조사가 가능한 측정 도구 마련
- 향후 정책 활용 기반 구축

■ 다양성 설문조사

- 영월군민 대상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운영
- FGI 및 시범 워크숍 참여자 5~8명을 설문 조사원으로 연계하여 대면 조사 실시

<표 I-3> 영월군민 대상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일시	대상	표본	방식	조사원
11월 20일~ 11월 25일	영월군민	400건 내외	시범 워크숍 참여자를 조사원으로 연계 조사원의 군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진행	5~8명 내외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연구의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문화정책 수립

- 주관적이었던 '다양성'의 가치를 수치화된 지표로 증명함으로써, 영월군 맞춤형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학적 근거 마련

■ 사회적 갈등 예방 및 공동체 결속력 강화

- 세대, 성별, 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잠재적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의 정체성 강화

■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국비 확보 근거 마련

- 문체부의 문화도시 성과평가 시 객관적인 성과 지표로 활용되어, 최우수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련 국비 공모사업에서 유리하게 활용

2) 연구의 활용방안

■ 맞춤형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나 취약한 분야를 타겟팅하여 '찾아가는 마을 워크숍'이나 소수자 포용 프로그램 설계하는데 활용

■ 문화도시 연차별 성과관리 지표(KPI)로 활용

-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조사를 정례화하여,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

■ 지역 내 문화 시설 및 콘텐츠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 조사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영월 내 박물관, 문화공간, 축제 프로그램 등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Barrier-free 등)을 갖추도록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데 활용

II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영원군
영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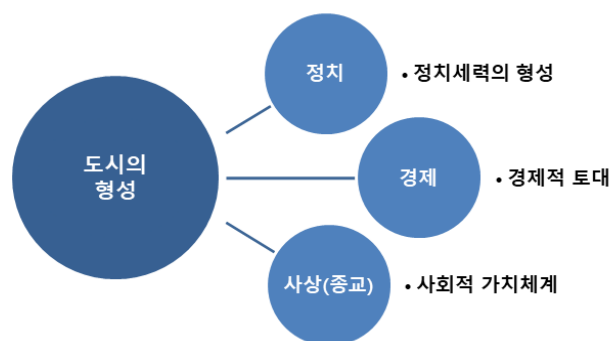
II. 문화다양성과 영월군

1. 도시의 성과 문화다양성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 도시의 성립¹⁾

- 일반적으로 도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 중에는 영국의 시인 조셉 카우퍼(Joseph M. Cowper)²⁾가 이야기한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어구가 있음.
- 이는, 도시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는 어구로서, 도시를 만든 일은 신이 인간을 만든 행위와 비교될 만큼 매우 획기적이고 복잡한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이렇듯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자, 다양한 변화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살아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실험실이기도 함.
- 고대도시에서 근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는 정치적 힘과 경제적 기반 그리고 이를 결집하는 사상(종교)을 통해 구성되었음.
- 마치, 조선시대 주요 도시가 새로운 사대부의 정치적 결합체와 토지제도 개혁에 기반한 경제적 토대 그리고 유교라는 가치를 통해 건설된 것과 같은 원리임.



(그림II-1) 도시 형성의 기반

1) 최혜자, 『맑은물상상누리 2단계 조성을 위한 참여소통프로그램 운영 및 2단계 발전방안 연구』, 시흥시, 2020, 76~78 재구성

2) 18세기 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 도시의 쇠퇴와 쇠퇴에 대한 접근

- 고대 이래 수많은 도시는 전쟁, 질병 등의 이유로 쇠퇴하기도 했으며, 도시의 쇠퇴에 대한 태도는 도시에 관한 주요한 관점으로서 의미가 있음.
- 도시는 마치 유기체나 세포와 같이 부분적으로 쇠퇴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발전하기 마련이며, 거대한 변화기를 맞이하면 자연스러운 흥망성쇠가 있음.
- 따라서 도시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쇠퇴에 접근하는 관점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임.
- 도시 자체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쇠퇴, 정치적 쇠퇴, 문화적 쇠퇴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음.

<표II-1>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접근 관점

관점	핵심 내용	대표 이론개념
환경적 관점	도시를 생태계로 보고 환경 부담 최소화	생태도시, 순환경제, 탄소중립
사회적 관점	공동체, 안전, 포용성이 지속성의 핵심	제인 제이콥스(보행커뮤니티) 데이비드 하비(도시권)
경제적 관점	혁신, 창의성, 산업 구조가 도시 지속성 좌우	사스키아 사센(글로벌 시티) 리처드 플로리다(창조도시)
문화적 관점	문화다양성, 정체성, 문화권이 지속성의 기반	UNESCO 문화다양성 선언 부르디외(문화자본)
거버넌스 관점	시민 참여, 협력적 의사결정이 지속성 조건	엘리노어 오스트롬 (Commons-공동체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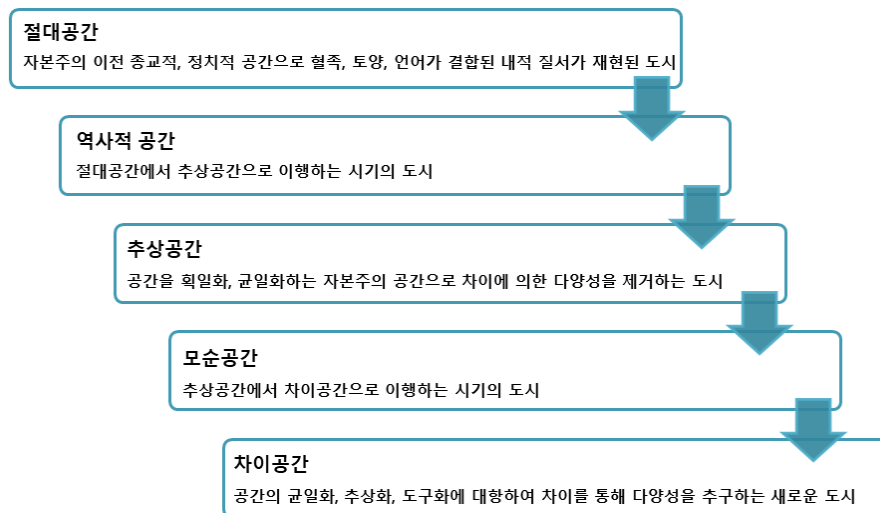
- 실제 도시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성장 중심의 관점에 익숙한 우리 사회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그러나 실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접근, 거버넌스적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에 연결되어 환경적 접근도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의 변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도시 구성원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도시문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임.

■ 도시를 ‘생산’하는 문화적 활력

-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생각에 다다른 순간,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도시가 가진 ‘활력’이다.
- 도시적 활력은 도시의 관념(지배이론)과 현실의 삶 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에

서 도시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이러한 현대 도시의 문제에 대해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³⁾는 도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다는 관점에서 도시 형성의 역사를 설명함.
- 르페브르에 의하면, 전통사회의 도시공간은 '절대공간'이었다면, '추상공간'은 자본주의적 획일화로 인해 실제의 삶이 추상화된 공간을 의미함.
- 또한, 추상공간 안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과도적 혹은 지엽적 현상이 일어날 때 '모순공간'이 되며, 다양성이 추구되는 도시로서 '차이공간'이 있음.
- 도시 안에서 기존의 관습과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불편'한 현상일 수 있으나, '차이'는 다양한 생각과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짐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북돋게 하는 역할을 함.



(그림Ⅱ-3)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공간의 경과

■ 도시를 새롭게 구성하는 다양성

- 이런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은 도시 안에 다양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됨.
- 도시의 모순과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실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도시의 활력을 만들고 도시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다양한 시민의 활동과 관계, 그것으로부터 표현되는 삶의 양식이 도시 안에서 역동할 때, 실재적 삶 기반의 도시가 '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현대 일상성 이론의 기초를 세웠으며, 일상성 속의 광고, 소비, 자동차, 여성 등의 문제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도시의 생성과 발전을 분석하는 등 일상의 시각에서 사회를 비평함.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개방성'

- 도시의 '생산'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한 『도시의 역사』 저자 조엘 코트킨(Joel Kotkin)⁴⁾은 그의 저서에서 도시 생성과 발전의 키워드는 크게 종교, 정치, 경제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는 종교, 정치, 경제 요인 중 하나 이상의 목적에 따라 지어지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지속 가능하게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적절히 서로를 보완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 대부분 근대도시는 도시를 구성할 정치적 이유나 가치가 경제적 목적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으며(또는 경제적 목적이 정치와 사상을 압도하거나) 경제적 목적이 쇠퇴하게 될 경우 도시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기반이 무너지기도 함.
-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삶에 기반한 '개방성'은 도시의 결핍을 채우고, 도시의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가능성'으로 도시의 비전을 재구성하는 핵심 요소임.
- 특히, 정보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문화적 개방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음.

■ 개방성과 공존의 가치

- 개인 태도로서의 개방성이나 문화적 감수성으로서의 다양성과 달리 도시의 개방성은, 개별적 존재들이 자기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됨.
- 이러한 자각은 단시간 내 이루어지거나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각과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아울러, 도시의 개방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제도와 환경은 물론, 도시에서 사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함.
-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발전을 기대하는 정책설계에 있어 도시의 '개방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과제는 매우 중요함.
- 특히, 문화다양성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이 도시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수렴된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감수성과 환경을 진단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토대가 됨.

4)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역사 전문가로서 현재 캘리포니아 채프먼 대학의 특별연구원임. 최근 코로나로 인해 도시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이를 "도시는 분산화와 밀집도의 저하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진단함.

2) 문화다양성 지표 사례 분석

■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분석

-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지표는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기초 자치구 특성화 목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까지 다양함.

<표II-2>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유형

연구명	내용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사회 혹은 특정 대상의 문화다양성 인식 측정을 위한 지표 연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연구	사회 혹은 특정 대상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조사 분석 연구
문화다양성 사업평가 연구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

- 이 연구에서는 특정 사업의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거나 지역 특성화 과정에서 변별점이 있는 사례를 우선 검토함.
- 선행연구 중 상위 기관의 조사 결과나 주변 지역과의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성 대상과 지표영역을 주요하게 검토함.

<표II-3> 문화다양성 지표 관련 선행연구

연구명	연도	연구주체	내용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기초연구	2013	문체부	- 문화다양성 국민인식조사를 기초로 사회문화, 문화 정체성, 문화예술 분야로 구성된 지표 개발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2018	문체부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제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24	문체부	- 2013년 지표 개발 연구, 2014년 지수측정 연구에 이어 실태를 대국민, 소수자 두 대상으로 조사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2018	부산문화재단	-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지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 실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김해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2019	김해시	-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설문지표를 개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인식 조사 실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2020	서울연구원	-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및 시범조사 실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정책과제	2021	서울연구원	- 서울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둔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정례화 연구
성동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21	성동문화재단	- 성동구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충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2021	충주문화재단	- 2020년 충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설계에 이어, 2년 차가 된 무지개다리 사업의 효과 진단
세종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2021	세종문화재단	-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하여 설문을 통한 시민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2012~ 현재	예술위원회	- 문화다양성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 사업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과거 무지개다리사업 평가로 운영

■ 문화다양성 지표 사례

①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24년 실태조사 기준

-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전 국민 대상의 실태조사로, 선행연구 중 범위가 가장 넓고 표본이 많아 보편성과 공신력이 높음.
- 다양성 대상을 인종 다양성과 사회 다양성으로 분류함하고, ①정체성 ②문화적 표현 ③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특징임.
- 인식 및 경험 영역에서 ‘해외여행 및 거주 경험’, ‘다른 나라의 문화 체험’ 등 구체적인 경험을 조사하여, 개인적 경험이 문화다양성 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 조사임.

<표II-4>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배경	- 국제협약과 법류에 의거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의무 발생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국가통계 개발 및 승인	
목적	-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서의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활용	
특징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와 정책 및 여건조사 - 외국인인 제외하나 다문화가정은 일반가구로서 조사대상에 포함	
조사 대상	-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외국인 제외) - 3000가구 내외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원이 가구 직접 조사	
조사 내용	영역	내용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가치 인식
		다양성 경험
	정체성의 다양성	정체성의 다양성 경험
		다양성 감수성
		정체성의 다양성 제약요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문화예술·콘텐츠 다양성 경험
		문화예술·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제약요인
		전통 및 고유문화 참여 경험
		전통 및 고유문화 감수성
		다양성 제약요인
	미디어 다양성	미디어 경험
미디어 다양성		
문화다양성 수준평가		

②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2020년 시범조사 기준

- 2018년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에 이어 2020년 시민인식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진행함.
- 과거 문체부의 조사가 수용자와 대상자를 분리했던 것에 반해, 일반시민을 수용자인 동시에 당사자로 설정한 것이 특징적임.
- 조사영역을 개인적 차원과 서울시 차원으로 우선 분류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정책 수요에 관한 시민 인식도 관찰 가능함.
- 비주류 문화표현의 보유도와 표현도, 존중도를 읽을 수 있는 것도 특징임.

<표II-5>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개요

구분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문제의식 강화 -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연구의 후속작업 진행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대상의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시범조사로 정책 추진 기초자료 활용 -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정책환경을 축으로 종합 시사점 도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대상의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와 정책환경 조사 - 소수성의 수용자인 동시에 당사자로서의 시민 설정 -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초점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1,000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로 온라인 패널 조사 				
지표 내용	영역	내용(지표)			
		영역			
	개인적 차원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인지도 -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별 경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온/오프라인) - 가족 혹은 친구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 잘 모르는 타인이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 비주류 문화표현 표현도 -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③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2017년 기획연구 기준

- 2016년의 『인천비전 2050』과 <문화성시 인천>의 실행과제에 따라 인천시의 시의 적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 지표 영역을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2015 문체부 문화다양성 지표를 잇고 있음.
- 인천시 내 실질적인 소수자 집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하고 지표영역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으로 상위 지표 연계성과 지역 정합성의 균형을 맞춤.

<표II-6>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개요

구분	내용		
배경	- 2016년 발표한 <인천비전 2050>과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의 실행과제로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추진'		
목적	- 인천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 파악 - 인천시 여건에 부합하는 문화다양성의 확대와 증진 방향 제시		
특징	- 인천시 문화다양성을 ①지정학 ②사회문화 ③역사문화 ④문화예술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지표 개발의 근거 강화 - 정책지표와 여건지표는 지자체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로 일괄 조사 및 분석 - 활동지표는 소수자,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정밀도 강화		
조사 대상 및 방법	- 정책&여건: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에서의 정량 조사 - 일반시민: 일반시민 대상의 인식조사 - 소수자: 지역, 젠더, 장애, 세대 범주로 7개 유형 대상으로 활동지표 조사		
지표 내용	정책지표	영역	내용(지표)
		정책수립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책 수립 건수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관련 조례·규칙 유무
		정책실행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건수
	여건지표	정책예산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 액수
		시설여건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지원여건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관련 단체 수
	활동지표 (소수자)	인력여건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수(여성 비율)
		인지도	- 소수자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사업) 인지도
		수용도	- 소수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수용도
		참여도	- 소수자 문화예술활동 참여도(참여경험시간) - 소수자 문화예술 시설·자원·인력 활용도
	인식지표 (일반)	평등도	- 소수자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의 평등도/차별도
		인지도	- 소수자 집단 인지도(직간접 이미지)
		수용도	- 소수자 집단 수용도(이웃, 동료, 가족)
		참여도	- 소수자 집단 참여도(교류의향, 교류경험)
		평등도	- 소수자 집단 우선지원 필요도
	찬반여부	-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찬반 여부 (*비정기 특수지표)	

④ 「김해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2022 지표개발 연구 기준

- 김해시와 김해문화도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관련 사업의 평가와 고도화 방안 개발을 위해 2022년에 지표를 개발하고 2023년에 실제 평가사업 운영
- 사업의 기획에서 진행, 후속 평가까지 아우르는 지표로, 보편적 인식이 아닌 특정 사업의 세밀한 평가에 최적화
- 김해문화도시의 비전에 입각해 키워드를 추출하여 평가영역으로 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평가와 조사 주체에 따른 특성화까지 반영되어 있어 항목들이 구체적이면서도 밀도가 높음.

<표II-7> 김해시 문화다양성 평가지표 개요

구분	내용		
배경	- 김해문화도시의 정책적 성과를 확장하고 지속하기 위한 사업 고도화 근거 필요		
목적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김해시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 문화도시 29개 사업의 분석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특징	- 핵심키워드→평가영역→항목→지표로 구체화 및 분화 시키는 방식의 설계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및 사업의 진행 전과정에서 점검 및 평가 가능 - 다양한 관계자들의 특성화 양식을 통한 직접 조사로, 주체성의 영향을 크게 받음.		
조사 대상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문화도시 사업		
방법	- 담당자·공간운영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진단 - 참여자: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평가 - 모니터링 위원: 평가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	주체	영역	내용(지표)
	담당자	운영환경	- 명시적 선언과 규정: 조직의 문화다양성 선언, 규정 - 조직과 협력관계: 문화다양성 선임 여부, 협력 여부
		사업기획	- 사업의 개방성: 소수자 그룹 의견 수렴, 비주류 문화 조치 - 참여의 접근성: 혐오표현 점검, 사업 환경의 접근성 점검 - 정보의 편의성: 소수자 정보 전달 매체, 기간 방식의 확보
	모니터링단	사업주체	- 운영주체의 역량: 운영주체의 환경과 기획여건, 소수자 네트워크
		사업계획	- 계획의 적절성: 문화다양성 관점에 입각한 계획, 관계방식
		사업운영	- 운영의 개방성: 소수자 포용 홍보, 확대조치, 참여자 소통
		사업성과	- 성과의 다양성: 소수표현 증진, 공존과 교류 기반
	참여자	단순 만족도	- 사업에 대한 만족, 계속 참여 의사
		조직과 협력관계	- 홍보의 적절성, 공간의 적절성
		사업의 개방성	- 활동 내용, 참여자 간의 상호 교류
		표현의 자유와 소통	- 개인의 고유성, 소통의 효용성
		문화다양성 인식증진	- 문화다양성 감수성, 차이에 대한 수용성

■ 선행연구 시사점

-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 연구는 앞서 밝힌 것처럼, 지표의 개발 뒤 실제 평가나 조사로 이어지며, 조사는 크게 인식조사와 정책 및 사업의 평가로 나뉨.
- 구성할 지표의 개발은 ‘소수성’과 ‘지표영역’을 분류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골격을 구성함
- ‘소수성’은 크게 인종의 다양성과 사회적 다양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각 연구가 개인의 정체성과 소수 문화를 해석하는 관점과 층위에 따라 분류됨.
- ‘지표영역’은 목적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①인지도 ②수용도 ③경험도 ④표현도를 축으로 설정하여 개인과 사회환경을 교차 측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됨.
- 이에, 문화다양성 지표는 삶의 다양성에 관한 개인의 감지와 사회에의 반영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다고 볼 수 있음.
- 측정 대상이 정책이나 사업까지 구체화 될수록 지표영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이때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됨.

<표II-8> 문화다양성 지표 선행연구 주요 내용

구분	문체부	서울시	인천시	김해시
대상 유형 (소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다양성 · 외국인근로자 · 결혼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동포 · 중국동포 / 유학생 - 사회다양성 · 생활방식 · 종교적 가치관 · 언어습관 / 취미활동 · 성역할 가치관 · 출신지역 / 출신학교 · 가정환경 /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민 - 이주노동자 - 북한이탈주민 - 종교가 다른 사람 -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 장애인 - 성별이 다른 사람 - 성소수자 -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 지역 / 젠더 · 장애 / 세대 - 소수문화 · 독립문화 · 전통문화 · 생활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장애인 - 외국인근로자 - 한 부모 가정 - 조손 가정 - 성소수자 - 임대아파트 거주자 - 이주민 자녀 - 결혼 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 김해 이주민 - 난민 - 김해 선주민 - 사할린 이주 동포
지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정체성의 다양성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 미디어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차원 · 인지도 · 수용도 · 차별경험도 · 비주류 문화표현 - 사회적 차원 · 문화다양성 수용도 ·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표 · 수립/실행/예산 - 여건지표 · 시설/자원/인력 - 활동/인식지표 · 인지도 · 수용도 · 참여도 · 평등도 · *찬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 운영환경/사업계획 - 모니터링단 · 사업주체/사업계획 · 사업운영/사업성과 - 참여자 · 단순 만족도 · 조직과 협력관계 · 사업의 개방성 · 표현의 자유와 소통 · 문화다양성 인식증진

- 이 연구에서는 영월군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지수화하는 목적에 따라, 인식조사 위주의 선행연구를 틀로 삼고, 서울시의 대상 설정과 김해시의 항목 특성화 방식, 영월군의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특성화 지표를 개발함.
- 이에 앞서, 영월군의 도시 현황과 영월군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방향 등 도시분석을 함.
- 또한, 영월군민의 삶의 방식과 실태 등 영월군민의 삶의 내용을 분석하여 영월군의 문화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2. 영월군 도시 현황과 영월군민의 삶에 관한 의식

1) 영월군 도시 현황

■ 영월군 도시 형성 과정

- 영월군은 고려 말부터 현(懸)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조선의 세종 12년(1430년)에 군(郡)으로 승격되면서 강원도 남부의 중심 행정 지역으로 자리 잡음.
- 특히 세조 2년(1456년)에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가 사망하고, 이후 장릉이 조성(1698년)되면서 정치·역사적 의미가 강화됨.
- 1910년대의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부군면 통폐합령 등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졌고, 1973년에는 영월읍과 상동읍이라는 2읍 체계가 마련됨.
- 1930년대에는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광업소가 설치되는 등 광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1980년대까지 호황이 지속됨.
- 이후 1994년 정부의 폐광 정책과 광산 산업의 쇠퇴로 상동읍과 일부 면 지역이 급격히 축소되며 영월읍에 행정·문화 기능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화함.
- 2024년에 들어 영월읍 덕포리의 신시가지 조성, 영흥·하송지구의 중심시가지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 도시 활력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영월군은 2읍 7면 체제를 유지하며,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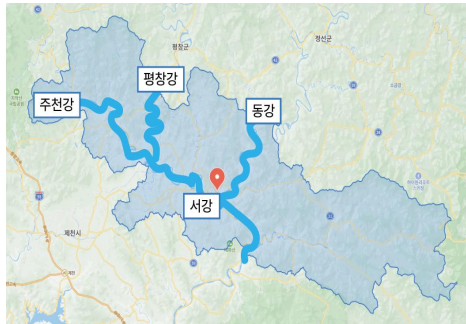
<표II-9> 영월군 행정구역의 주요 변화

구분	내용
고려	- 1167년 영월현 설치 - 1372년 내성현이 영월군으로 승격
조선시대 (1392~1910년)	- 1699년 조선 영월도호부로 승격 - 1895년 충주부 영월군 - 1896년 강원도로 귀속
일제강점기 (1910~1945년)	- 1914년 군면 폐합으로 8면(군내, 양변, 수주, 하동, 상동, 북, 서, 남)으로 개편 - 1937년 군내면이 영월면으로 개칭
해방 이후 (1945년~)	- 1960년 영월면이 상동면과 연하리를 편입하며 영월읍으로 승격(1읍7면) - 1973년 상동면이 신동포면 천포리 일부 편입하여 상동읍으로 승격(2읍6면)
1990년대~	- 1998년 2읍7면1출장소로 행정구역 개편 - 2009년 서면→한반도면, 하동면→김삿갓면 개칭 - 2016년 수주면→무릉도원면 개칭 - 2021년 중동면→산술면 개칭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영월군, (접속 2025.9.16.) 재구성

■ 영월군의 지형과 지리

- 영월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면적은 1,127.45km²로 강원 전체 면적의 약 6.7%를 차지함.
- 동서 간 86.3km, 남북 간 51.1km로 긴 형태이며, 북으로는 평창군, 정선군, 동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 남으로는 영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2도 4시 5개 군과 접경을 이룸.
-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지류가 만나는 산악 지형으로 군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이며, 동강과 서강, 주천강의 발달로 산세와 분지, 풍부한 수변자원이 조화를 이룸.
- 석회암 지대가 넓게 분포하여 지질·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II-3) 영월군 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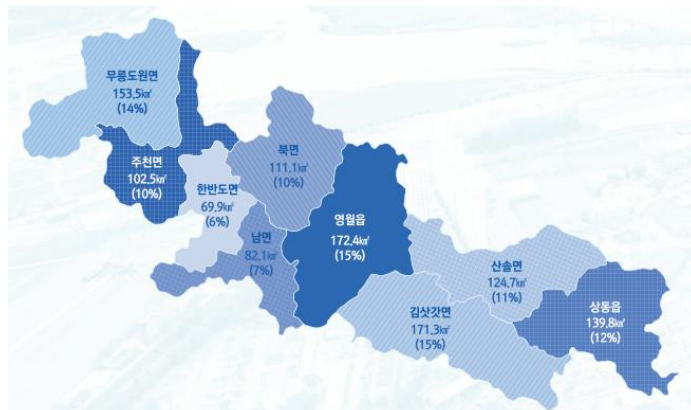


(그림II-4) 영월군 접경지역

출처: (좌)영월군 홈페이지, (우)「2025년 주요업무계획」, 4쪽

■ 영월군 행정구역

- 영월군의 행정구역은 2읍과 7면으로 구성됨.
- 면적은 1,127.45km²에 대비하여 영월읍이 15.26%, 김삿갓면이 15.17%, 무릉도원면이 13.58%로, 세 개 읍면의 면적 합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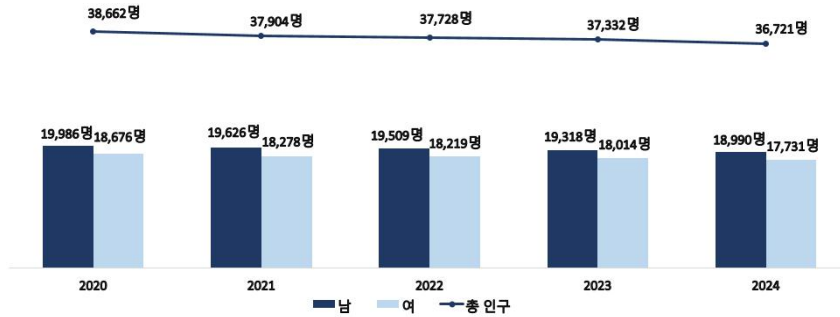
(그림II-5) 영월군 면적 지도

출처: 「2025년 주요업무계획」, 영월군, 4쪽

■ 영월군 인구 현황

① 전체 인구 현황

- 2025년 8월 기준, 영월군의 인구수는 36,334명으로 강원도 총인구의 2.4%의 비율을 차지하고 18개 시·군 중 9번째로 중위권에 해당함.
- 영월군 인구수는 2020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성비는 여성이 17,477명, 남성이 18,857명으로 남성이 다소 높음.



(그림II-6) 영월군 인구 추이(내국인)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7.), 재구성

② 행정구역별 현황

- 2025년 8월 기준, 영월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영월읍으로, 영월군 인구의 53.8%인 19,560명이 거주하고 있음.
- 상동읍은 총 인구수 2.8%인 1,001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지로, 농업이나 생활에 적합한 평지가 적은 것으로 보임.

<표II-10> 영월군의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2025.8 기준)

구분	총 인구수(명)	영월군 내 비율(%)	남성(명)		여성(명)		세대수(세대)	세대당 인구(명)
			구성비(%)	구성비(%)				
영월군	36,334	100.0	18,857	51.9	17,477	48.1	21,039	1.73
영월읍	19,560	53.8	9,981	51.0	9,579	49.0	10,533	1.86
상동읍	1,001	2.8	531	53.0	470	47.0	695	1.44
산술면	1,379	3.8	745	54.0	634	46.0	870	1.59
김삿갓면	1,776	4.9	940	52.9	836	47.1	1,113	1.60
북면	1,985	5.5	1,054	53.1	931	46.9	1,221	1.63
남면	2,117	5.8	1,136	53.7	981	46.3	1,332	1.59
한반도면	1,136	3.1	611	53.8	525	46.2	676	1.68
쌍용출장소	1,493	4.1	800	53.6	693	46.4	943	1.58
주천면	3,778	10.4	1,956	51.8	1,822	48.2	2,335	1.62
무릉도원면	2,109	5.8	1,103	52.3	1,006	47.7	1,321	1.6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7.), 재구성

- 최근 5년간 영월군 읍면별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김삿갓면, 주천면, 무릉도원면의 경우 2020년 대비 약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영월읍, 상동읍, 산솔면, 북면, 한반도면, 쌍용출장소를 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함.

<표II-11> 최근 5년간 영월군 읍면별 인구 추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월군	38,662	37,904	37,728	37,332	36,721
영월읍	21,098	20,799	20,706	20,360	19,838
상동읍	1,094	1,025	1,002	1,029	1,009
산솔면	1,472	1,426	1,399	1,390	1,394
김삿갓면	1,736	1,698	1,721	1,769	1,779
북면	2,181	2,074	2,077	2,036	2,006
남면	2,261	2,225	2,188	2,132	2,109
한반도면	1,256	1,212	1,214	1,184	1,145
쌍용출장소	1,754	1,658	1,623	1,571	1,543
주천면	3,784	3,740	3,719	3,791	3,793
무릉도원면	2,026	2,047	2,079	2,070	2,105

*2021년 11월 2일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개칭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재구성

■ 영월군 인구 세대 현황

- 영월군 주민의 평균연령은 54.8세로 강원도 주민 전체 평균연령인 48.6세보다 6.2세 높고, 강원도 내에서 평균연령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남.
- 영월군 남성의 평균연령은 53.2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56.6세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음.

<표II-12> 강원도 시군별 평균연령 현황(2025.8 기준)

구 분	평균연령(세)	성별 평균연령(세)	
		남성 평균연령(세)	여성 평균연령(세)
강원도	48.6	47.1	50.1
영월군	54.8	53.2	56.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재구성

- 영월군의 행정구역별 주민의 평균연령은 54.8세로 영월읍 주민의 평균연령 54.8세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별 평균연령을 보면, 영월읍이 49.9세로 가장 낮으며, 산돌면이 61.7세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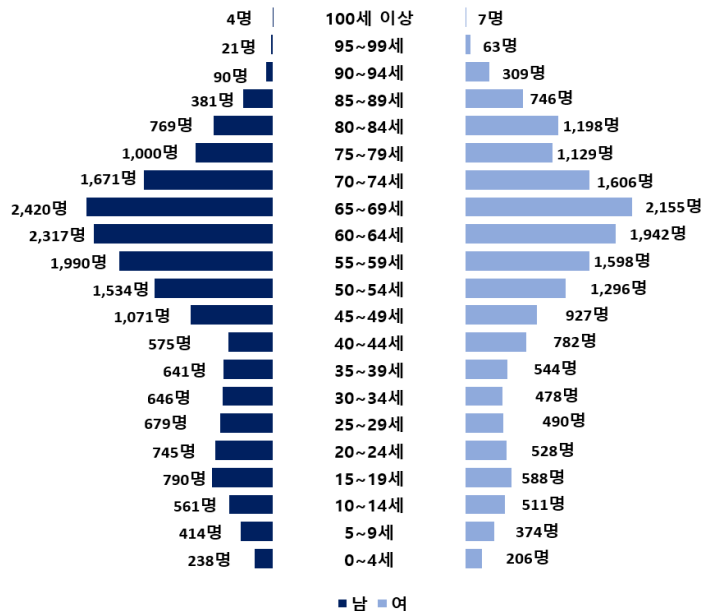
<표II-13> 영월군 행정구역별 평균연령 현황(2025.8 기준)

구 분	평균연령(세)	평균연령(세)	
		남성 평균연령(세)	여성 평균연령(세)
영월군	54.8	53.2	56.6
영월읍	49.9	48.1	51.8
상동읍	60.8	57	65.1
산솔면	61.7	60.1	63.7
김삿갓면	59.8	58.9	60.7
북면	60.5	59	62.3
남면	61	58.8	63.6
한반도면	58.3	57.4	59.3
쌍용출장소	60.6	58.8	62.6
주천면	60.2	58.6	61.9
무릉도원면	61.4	60.6	62.2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4.04.05.), 재구성

■ 영월군 연령별 인구 분포

- 영월군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은 종형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중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을 때 나타남. 영월군의 경우, 50~70세의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그림II-7) 영월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5.8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재구성

■ 영월군 세대별 인구현황

① 고령인구⁵⁾ 현황

- 2025년 8월 기준 영월군의 인구 중 고령인구는 37.3%로, 강원도 전체보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국제연합(UN)의 기준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함.
-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영월읍을 외 모든 읍면에서 40.0% 이상으로 나타남.

<표II-14> 강원도 시군별 고령인구 현황(2025.8 기준)

구 분	총 인구(명)	강원도 내 고령인구 비율		시군별 고령인구 성비			
		고령인구(명)	구성비(%)	남성(명)	구성비(%)	여성(명)	구성비(%)
강원도	1,509,670	39,8110	264	178,835	11.8	219,275	14.5
영월군	36,334	13,569	37.3	6,356	17.5	7,213	19.9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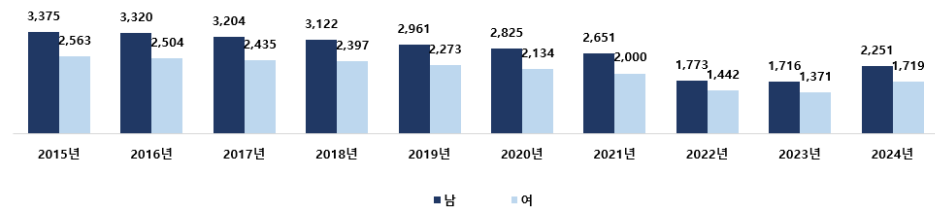
<표II-15> 영월군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현황(2025.8 기준)

구 분	총 인구(명)	고령인구 남녀별 구성비					
		고령인구(명)	구성비(%)	남성(명)	구성비(%)	여성(명)	구성비(%)
영월군	36,334	13,569	37.3	6,356	17.5	7,213	19.9
영월읍	19,560	5,550	28.4	2,467	12.6	3,083	15.8
상동읍	1,001	477	47.7	210	21.0	267	26.7
산솔면	1,379	677	49.1	333	24.1	344	24.9
김삿갓면	1,776	793	44.7	406	22.9	387	21.8
북면	1,985	950	47.9	448	22.6	502	25.3
남면	2,117	1,034	48.8	487	23.0	547	25.8
한반도면	1,136	496	43.7	254	22.4	242	21.3
쌍용출장소	1,493	732	49.0	342	22.9	390	26.1
주천면	3,778	1,823	48.3	886	23.5	937	24.8
무릉도원면	2,109	1,037	49.2	523	24.8	514	24.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재구성

② 청년인구(20세~34세) 현황

- 영월군의 청년인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꾸준히 감소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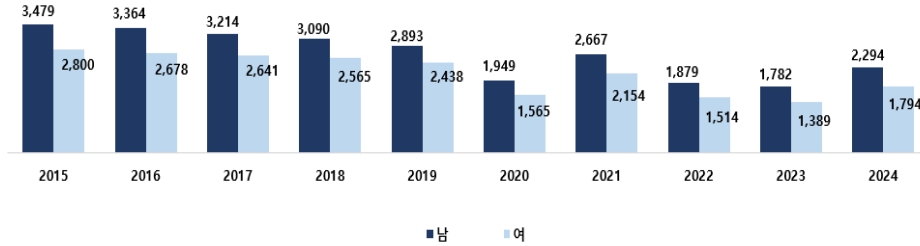
(그림II-8) 영월군 청년인구 추이(2024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재구성

5)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함.

③ 청소년 인구(10세~19세) 현황

- 영월군의 청소년 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2024년 기준, 영월군의 청소년 인구 중 남성은 2,294명이고, 여성은 1,794명으로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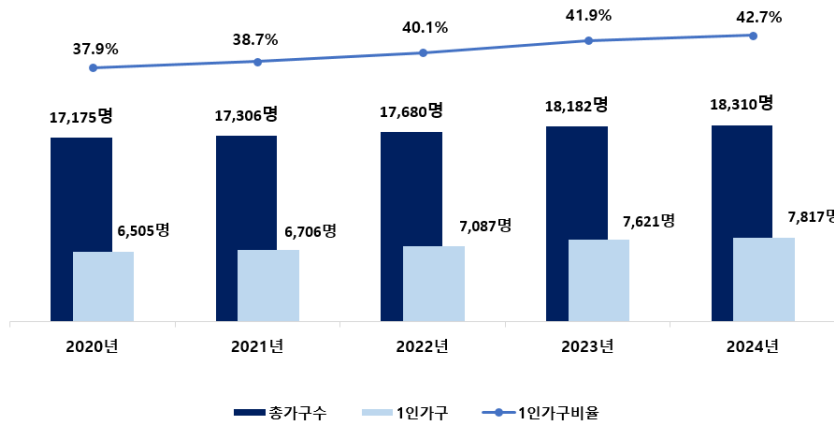


(그림Ⅱ-9) 영월군 청소년 인구 추이(2024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8.), 재구성

■ 영월군 1인 가구 현황

- 영월군의 1인 가구는 7,817명으로 영월군 총가구 수의 42.7%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성비는, 남성 1인 가구 수가 4,101명, 여성 1인 가구 수가 3,716명으로, 남성 가구가 여성 가구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Ⅱ-10) 영월군 연도별 1인 가구 추이(2024년 기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접속 2024.04.05.), 재구성

■ 영월군 외국인 주민 현황

- 영월군 외국인 주민은 714명으로 영월군 총인구의 2.0%,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16번째에 해당함.

<표II-16> 강원도 및 영월군 외국인 주민 현황(2024년 기준)

구분	총인구(명)	구성비(%)			
		구성비(%)	외국인인구수(명)	남성(명)	여성(명)
강원도	1,509,670	2.4	36,580	20,871	15,709
영월군	36,334	2.0	714	377	33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접속 2025.9.18.), 재구성

- 2023년을 기준으로 영월군 내 외국인 주민 중 미등록 체류자를 제외하면, 정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II-17> 강원도 및 영월군 유형별 외국인 주민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강원도	7,192	3,994	5,885	2,600	13,469	5,014
영월군	91	105	16	67	261	146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앞선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미등록 체류자
출처: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접속 2025.9.18.), 재구성

■ 영월군 다문화 가구 현황

- 영월군 다문화 가구는 2024년 기준 303가구, 가구원 수는 884명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다문화가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가구원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2% 초반대를 유지함.
- 출생으로 인한 다문화 가구원 수는 615명으로, 1가구당 약 2명의 다문화 2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II-18> 최근 5년 간 영월군 다문화 가구 변화

구분	주민등록 인구	다문화 가구	구성비(%)					
			구성비(%)	가구원(명)	출생(명)	귀화(명)	결혼(명)	기타(명)
2020	38,662	261	2.3%	905	659	123	107	16
2021	37,904	269	2.4%	897	647	139	95	16
2022	37,728	270	2.3%	882	629	142	92	19
2023	37,332	294	2.4%	904	641	145	105	13
2024	36,721	303	2.4%	884	615	157	102	1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접속 2025.9.18.), 재구성

- 영월군은 2025년에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영월군 산업경제 현황

- 영월군의 지역내총생산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원으로 강원도 1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6위에 해당됨.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1천만 원으로 강원도 내에서 14위에 해당함.

<표II-19> 강원도 및 영월군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현황(GDP, 당해년 가격 기준)

구 분	지역내총생산(백만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강원도	48,822,640	48,656,564	51,207,169	33,780	33,945	36,350
영월군	1,335,637	1,300,918	1,347,674	924	908	95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접속 2025.9.19.), 재구성

- 영월군 내의 사업체 수는 5,778개, 종사자 수는 21,560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사업체 수는 10위, 종사자 수 8위에 해당함.

<표II-20> 강원도 및 영월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2023년)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남성(명)	여성(명)
강원도	209,314	738,221	404,870	333,351
영월군	5,778	21,560	13,079	8,481

출처: 통계연보, 2024, 강원도, 재구성

- 이들 사업체는 5명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91.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사업체 비율은 0.2% 정도임.

<표II-21> 영월군 사업체 규모(2023년 기준, 단위 %)

규모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개수	7,191	322	155	122	20	18	1	2	-
비율	91.8	4.1	2.0	1.6	0.3	0.2	0.0	0.0	0.0

출처: 통계연보, 2024, 영월군, 재구성

- 영월군의 산업분류별 사업체는 숙박 및 음식점업(1,232개) > 도매 및 소매업(1,117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558개)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영월군의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설업(3,263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1명) > 제조업(2,464명) 순으로 나타남.

<표II-22> 영월군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2023년 기준)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남성(명)	여성(명)
합계	5,778	21,560	13,079	8,481
도매 및 소매업	1,117	1,926	1,004	922
숙박 및 음식점업	1,232	2,144	821	1,3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8	751	479	272
운수 및 창고업	298	584	514	70
농업, 임업 및 어업	46	178	117	61
광업	26	346	317	29
제조업	339	2,464	1,905	5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16	478	354	12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4	162	129	33
건설업	864	3,263	2,820	443
정보통신업	46	171	113	58
금융 및 보험업	37	247	128	119
부동산업	83	153	111	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	469	322	14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5	883	668	2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6	3,151	1,914	1,237
교육 서비스업	168	1,184	447	7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	2,368	486	1,8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6	638	430	208

출처: 통계연보, 2024, 영월군, 재구성

■ 영월군 근로자 고용률

- 영월군의 경제활동인구는 2만3천 명으로, 이 중 실업자는 1천 명으로 실업률이 1.6%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71.7%에 달해 강원도 내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고용률 역시 70.6%로 양호한 편임.
- 영월군은 원주·춘천 등 보다 경제활동인구의 규모 자체는 낮으나, 최근 낮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점은 긍정요인으로 볼 수 있음.

<표II-23> 강원도 시군내 고용동향(2025.1/2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강원도	821	800	21	507	61.8%	60.3%	2.5%
영월군	23	22	0	9	71.7%	70.6%	1.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접속 2025.9.19.), 재구성

■ 도시 현황에 따른 시사점

① 지리·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산업군 개발 촉진

-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지류가 만나는 험준한 산세로 인해 농경지는 제한적이고, 하천 충적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됨.

- 동강·서강·주천강과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은 생태·지질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자연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은 크고 광범위한 산림을 보유함.
- 광업 쇠퇴 이후 산업 다변화가 미흡한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이 주를 이루고, 전체 사업체의 91.8%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2도 4시 5개군과 접경을 이룬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의 높은 연결성을 활용한 도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②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관계 인구에 관한 포용력 확대

- 2020년 이후 지속하여 감소하는 인구(2020년 38,662명 → 2025년 36,334명)와 평균연령 54.8세인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여, 노동력 부족, 지역경제 활력 저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음.
- 청년층은 물론, 다수의 인구가 영월읍·주천면·남면 등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며 외곽 읍면은 공동화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임.
- 외국인 주민 또한, 전체 인구의 2.0% 안팎으로 높지 않아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인구 유입 요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③ 도시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자원과 그 위상에 관한 태도 전환 필요

- 인구의 감소와 세대 및 유형 불균형, 낮은 생산성 등 개별적인 도시 특성이 강원도 전반에 비해 두드러지진 않으나 종합적으로 쇠퇴 추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풍부한 자연, 상징적인 역사,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과 높은 고용률 등 이점과 기회를 지닌 지역이기도 함.
- 도시 활력을 위한 관광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 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도시 내적으로는 유·무형 도시자원에 관한 시선을 확장하고 활용의 주체인 정주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애착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유입 인구에 관해 단기·중기·장기 지원의 균형과 정주 인구에 관한 지원의 형평성을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인구감소 추이에는 제동을 걸고 관계 인구를 순환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영월군 문화환경

■ 영월군 정책 여건

① 군정 운영 방향

- 영월군의 군정 운영 방향은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을 비전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살기 좋은 활력 영월”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함.

<표II-24> 영월군 2025 군정 운영 방향

구분	우선순위 공약
지방소멸위기 극복, 미래영월 100년 준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발굴 - 군민과 양방향 소통 적극행정,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강화
미래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미래산업육성과기회발전특구 지역경기 활성화 - 청년과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창출
영월읍 전역의 새로운 활력,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	- 영월읍 전역의 새로운 활력, 생활인구 확대 정주 조성 - 교통망의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삶
수도권 야외정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 영월	- 봉래산 명소화와 관광인프라 구축,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영월	-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깨끗한 환경 조성 - 산림자원과 소득증대,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영월형 교육발전특구, 농촌유학 일번지 - 고령화 대비 공공돌봄 기능강화, 모두가 행복한 삶 - 강원남부 의료 중심도시, 모두가 건강한 삶
농촌의 활력,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 활력이 넘치는 미래 농촌조성 - 농가소득 안정화로 활기찬 농업농촌 구현

출처: 「2025 영월군 주요업무계획」, 영월군, 7쪽, 재구성.

② 재정 현황

- 2024년 영월군 재정자립도⁶⁾는 13.5%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9번째, 재정자주도⁷⁾는 63.1%로 강원도 전체 대비 평균 수준임.

<표II-25> 최근 5년간 영월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세입과목 개편후, 단위:%)

자치구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강원도	25.8	73.1	24.5	67.5	24.7	71.6	25.4	72.8	25.2	70.1
영월군	15.2	69.2	13.3	64.5	11.6	68.1	11.5	64.5	13.5	63.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접속 2025.09.16.), 재구성

6) 재정자립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예산*100

7)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

- 영월군의 조직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기준으로 주민복지과가 15.46%로 가장 높고, 행정과 12.77%, 기획감사실 7.30%의 순으로 나타남.
- 이중 문화관광과 예산은 30,935,924천 원으로 5.32%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8% 증가한 수치임.

<표II-26> 영월군 조직별 예산 현황(본청 기준, 단위:천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상비(%)	구상비(%)	구상비(%)	구상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581,450,184	100	534,818,985	100	46,631,199	8.72
본청	484,271,999	83.29	441,172,023	82.49	43,099,976	9.77
기획감사실	42,445,459	7.30	33,905,737	6.34	8,539,722	25.19
지역개발실	22,639,910	3.89	27,750,839	5.19	-5,110,929	-18.42
종합민원실	2,463,824	0.42	2,255,801	0.42	208,023	9.22
신속허가과	106,550	0.02	105,090	0.02	1,460	1.39
행정과	74,278,913	12.77	71,956,474	13.45	2,322,439	3.23
주민복지과	89,918,188	15.46	87,298,311	16.32	2,619,877	3.00
여성가족과	23,958,210	4.12	22,278,601	4.17	1,679,609	7.54
세무회계과	3,907,103	0.67	4,091,273	0.76	-184,170	-4.50
문화관광과	30,935,924	5.32	29,954,446	5.60	981,478	3.28
교육체육과	19,827,338	3.41	16,518,164	3.09	3,309,174	20.03
산업경제과	41,889,006	7.20	22,124,328	4.14	19,764,678	89.33
환경위생과	30,535,822	5.25	27,779,191	5.19	2,756,631	9.92
산림정원과	31,599,544	5.43	30,224,728	5.65	1,374,816	4.55
건설과	37,532,635	6.46	48,409,926	9.05	-10,877,291	-22.47
안전교통과	18,125,603	3.12	0,884,777	2.04	7,240,826	66.52
일자리청년과	14,107,970	2.43	5,634,337	1.05	8,473,633	150.39

출처: 영월군 홈페이지, 재정공시 (접속 2025.09.16.), 재구성

③ 문화사업

- 2025년 영월군 문화 분야 비전은 ‘수도권 야외정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 영월’인데, 이는 2024년의 비전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야외정원’을 잇고 있음.
- 2025년의 문화 분야 비전은 ‘봉래산 명소화와 관광인프라 구축,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를 방향으로, 4개의 사업군과 8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됨.

<표II-27> 영월군 문화 분야 주요업무계획_문화관광 분야

사업군	세부내용
봉래산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즐거운 문화도시	- 봉래산 명소화 본사업의 완성과 운영준비(전망대 설치 등 4개 세부사업) - 시내관광(걷는길) 활성화(여행자 라운지, 문화야시장 조성 등 6개 세부사업) - 관광자원고도화로 생황인구 유입, 관광 만족도 1위 (영월관광센터 명품화 등 10개 세부사업)
지역자산의 브랜드화로 문화도시 구현	- 발굴 유물 역사문화공간 예담고 조성 - 낮도깨비 공연 활성화, 문화야시장 - 60주년 단증문화제 글로벌화 준비 - 국립박물관 유치 활동 전개 - 문화도시 조성사업 집중 및 고도화 - 박물관고을특구 재도약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2025년 동강국제사진제 개편 추진

사업군	세부내용
수도권 야외정원 영월 조성	- 수도권 야외정원 영월조성(동서강정원 연당원 운영 등 4개 세부사업) - 정원도시 영월 친수문화도시(동강과 서강을 활용한 3개 세부사업)
스포츠도시 경쟁력 강화	- 체육 인프라 확충(가족생활 스포츠 공원 확충 등 4개 세부사업) - 지역경제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생활체육대회 등 3개 세부사업) -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출처: 「2025 영월군 주요업무계획」, 영월군, 33~35쪽, 재구성

④ 문화관광 관련 조례

- 영월군 문화관광과 소관의 조례는 총 36건으로 확인됨.
- 문화유산 조례인 ‘고씨동굴 내부안전 규정’(1974년)과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1979년)가 제정된 이래 2004년까지 관련 조례의 제·개정 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전체 36건 중 15건이 강원관광재단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됨.

<표II-28> 영월군 문화관광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	제정일	
문화 예술	1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2025.05.09.
	2	영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021.12.31.
	3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11.06.
	4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09.18.
	5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2007.05.25.
	6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1.11.25.
	7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6.12.30.
	8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조례	2021.05.28.
	9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5.08.
	10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2024.03.29.
	11	영월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조례	2015.11.06.
	12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2007.05.25.
관광 마케팅	13	영월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2020.09.25.
	14	영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015.07.31.
	15	영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013.04.05.
	16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2.29.
	17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15.09.18.
관광 시설	18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7.23.
	19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07.01.
	20	영월군 상동 숲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2015.10.30.
	21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2013.09.13.
	22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9.
	23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2.07.01.
	24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2016.10.21.
	25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5.09.

구분	조례명	제정일	
박물관	26	영월 박물관고를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5.23.
	27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016.04.15.
	28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2004.05.08.
	29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2008.08.01.
	30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12.31.
	31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3.31.
	32	영월군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관리 규정	2016.08.09.
문화유산	33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1979.08.14.
	34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16.10.28.
	35	영월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2019.04.05.
	36	영월군 고씨동굴 내부안전 규정	1974.10.25.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홈페이지, (접속 2024.03.26.), 재구성

■ 영월문화관광재단

① 운영 방향

- 영월문화관광재단은 2016년 1월 영월문화재단으로 출범하였고, 2023년 영월문화관광재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며 관광의 중요성을 부각함.
- 영월문화관광재단의 미션은 지역문화정책과 영월 민선8기, 영월문화도시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며, 이상의 여건을 기반으로 4개 전략과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함.

<표II-29> 영월관광문화재단 전략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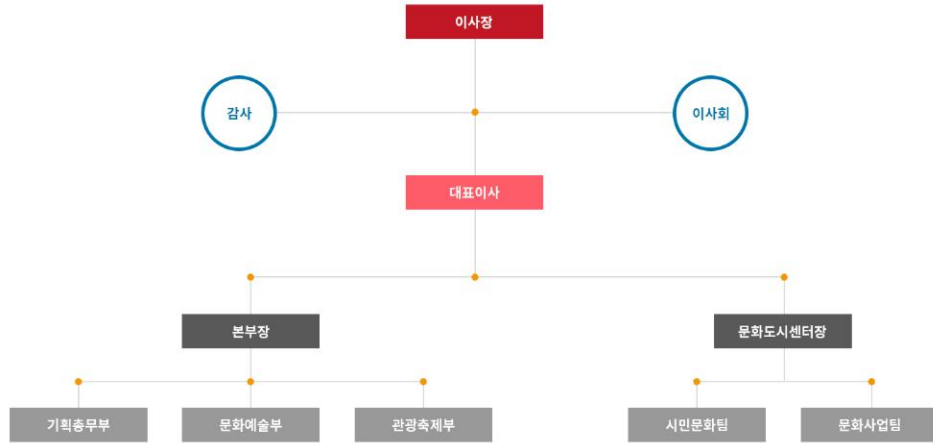
전략	과제
문화 균형성	- 권역별 균형적 문화공간 설치, 운영 및 네트워킹 - 문화적 도시재생
영월인 주도성	- 예술가 지원, 생활예술 일상화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 창의적 인재 양성과 문화관광의 창업·창직 등 일자리 창출
문화자산 확장성	- 문화다양성의 기반 구축과 사업 확대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관광역량과 기반 강화 - 영월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구축 - 생활인구 확장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문화적 방안 제시
경영혁신	- 국내외 도시와 지역문화권 간의 교류·협력사업 강화 -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화협치 시스템 실천 -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 재단의 전문성과 사회적(ESG) 책임 강화

출처: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비전과 미션(접속 2025.09.16.), 재접속

② 조직

- 영월문화관광재단의 관련 사업 추진 부서는 ‘문화예술부’, ‘관광축제부’, ‘문화도시센터’로 볼 수 있고, 문화도시센터는 ‘시민문화팀’과 ‘문화사업팀’으로 구성됨.

- 2025년을 기준으로 1본부 3부 1센터 구성에 임직원은 총 24명인데, 이중 8명은 계약직 및 기간제로 근무 중임.



(그림II-11) 영월문화관광재단 조직도

출처: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부서안내(접속 2025.09.16.)

③ 부서별 주요 업무

-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업무는 부서별로 아래와 같으며, 문화유산과 관광 관련 축제 사업과 공모사업 운영 외에는 모두 문화도시센터 소관임.

<표II-30> 영월문화관광재단 부서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기획총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 감사, 조직 및 인사 관리, 노무관리,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 예산, 회계, 결산 및 계약, 자금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영월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공모사업 - 아르고공연연습센터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 지역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
관광축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종문화제 기획 및 운영 - 동강국제사진제 기획 및 운영 - 동강땃목축제 기획 및 운영 - 김삿갓문화제 기획 및 운영 -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도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서무 및 대외기관 자료 작성 업무 - 예산 및 계약, 회계 업무 - 문화도시센터 관리 및 운영 - 도시문화 연구개발(R&D) 기획 및 운영 - 문화도시 거버넌스 기획 및 운영 - 아카이브 영월 기획 및 운영

구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산 브랜딩 기획 및 운영 - 문화광부학교 기획 및 운영 -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 기획 및 운영 - 지역생활실험실 기획 및 운영 - 문화광산 영월 기획 및 운영 - 구석구석 문화영월 기획 및 운영 - 문화도시 홍보 및 마케팅 업무 - 문화도시 홈페이지(블로그, SNS 등) 관리 업무

출처: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접속 2025.09.18.), 재구성

④ 예산

- 영월문화재단 2025년 예산은 9,628,141천 원으로 2024년 예산보다 1,253,804천 원(14.97%) 증가함.
- 4대 축제와 문화예술 육성이 약 30%가량 증가했고, 관광활성화(DMO육성)가 신설되었으며, 문화도시 예산은 2025년과 2024년이 동일함.

<표II-31> 영월문화관광재단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증감현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예산 총계	9,628,141	100.00%	8,374,337	100.00%	1,253,804	14.97%
4대 축제 등	3,716,176	38.60%	2,861,176	34.17	855,000	29.88%
문화예술육성	686,561	7.13%	525,216	6.27	161,345	30.72%
관광활성화	200,000	2.08%	0	0	200,000	100.00%
문화도시	3,000,000	31.16%	3,000,000	38.82%	0	0.00%
운영비	1,824,183	18.95%	1,877,379	22.42	-53,196	-2.83%
예비비	201,221		110,566		0,655	81.99%

출처: 2025년 영월문화관광재단 사업계획, 2025년 주요사업 내역, 2025년 2월, 재구성

⑤ 세부사업

- 2025년을 기준으로, 영월문화관광재단의 목표는 ‘문화광산으로의 도약, 다시 영월’이며, 각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설계함.
- 이중 문화도시센터는 지방소멸 위기와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추진전략으로 삼아 도시 위기에 관한 문화적 대응을 전면화함.

<표II-32> 영월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구분	내용	
2025 비전	- 문화광산으로의 도약, 다시 영월	
성과목표	- 생활밀착형 문화지역맞춤형 관광, 지속가능한 ESG경영	
중점 추진과제	기획총무부	- ESG경영 체계 구축 - 문화예술회관 - 관리를 통한 문화 향유 및문화복지 향상 - 직원 교육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
	문화예술부	- 문화예술인 지원강화 및네트워크 추진 - 전문예술 및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광축제부	- 군민 주도의 단종문화제 추진 - 김삿갓의 예술혼을 가미한 문학 중심의 종합예술제 추진 - 영월 4대축제 브랜드화 추진
	DMO	- 각 분야별 협력기관 및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현지주민과 방문객과의 활발한 문화 공유 확산
	문화도시센터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 하는 문화도시 조성 - 시민 중심의 협력적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출처: 「2025년 영월문화관광재단 사업계획」, 2025년 주요사업 내역, 2025년 2월, 재구성

- 영월문화도시센터의 세부 업무는 아래와 같음.

<표II-33> 영월문화도시센터 세부업무

구분	사업
문화도시센터	- 문화도시센터 운영 - 도시문화 연구개발(R/D)(성과관리 및 확산, 사업 인력 역량 강화) - 문화도시 거버넌스(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문화영월 총회) - 아카이브 영월(지역 문화자산 발굴 및 보존) - 도시자산 브랜딩(도시브랜드 자산 발굴) - 문화광부학교(문화 인재 양성) - 지역생활실험실(문화상품의 기획, 주체발굴, 문화실험활동, 문화창업 유도) - 문화광산 영월(대상 및 읍면 별 문화활동 촉진 프로그램 운영) - 구석구석 문화영월(15분 문화생활권 구축) -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寧越)(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출처: 「2025년 영월문화관광재단 사업계획」, 2025년 주요사업 내역, 2025년 2월, 재구성

■ 영월군 문화자원

① 영월군 문화기반시설

- 영월군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29개인데, 이중 박물관이 21개로 가장 많음.
- 가장 오래된 시설은 영월문화원으로 1955년에 설립되었고, 가장 최근의 시설은 2022년 설립된 영월지오뮤지엄(박물관)임.
-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덕포생활문화센터와 한반도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생

활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표II-34> 영월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시설	시설명	구분	소재지	개관설립	시설규모		이용현황(명)
					부지(m ²)	건물(m ²)	
공공 도서관	영월교육도서관	교육청	영월읍	1974	1600	1454	49,969
	영월주천도서관	지자체	주천면	2006	2049	695	7,258
박물관	강원도 탄광문화촌	공립	북면	2009	88,556	1,061	33,272
	난고 김삿갓 문학관	공립	김삿갓면	2003	4,826	853	18,849
	단종역사관	공립	영월읍	2002	3,794	559	111,339
	동강사진박물관	공립	영월읍	2005	20,452	2,737	27,794
	동강생태정보센터	공립	영월읍	2010	180,281	871	20,916
	라디오스타박물관	공립	영월읍	2015	4,949	824	10,555
	별마로천문대	공립	영월읍	2001	4,058	950	55,528
	영월따리굴솜박물관	공립	주천면	2019	8,475	4,347	72,310
	영월동굴생태관	공립	김삿갓면	2009	2,978	1,594	25,343
	만봉불화박물관	사립	김삿갓면	2013	7,687	1,854	239
	영월근충박물관	사립	영월읍	2002	2,970	864	20,916
	미디어기자박물관	사립	한반도면	2012	9,573	479	4,015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사립	김삿갓면	2009	10,389	1,225	5,584
	영월종교미술박물관	사립	북면	2009	7,628	510	6,103
	영월지오뮤지엄	사립	북면	2022	4,142	345	1,536
	영월초등교육박물관	사립	북면	2012	10,141	628	1,045
	영월화석박물관	사립	주천면	2007	3,151	481	4,870
	인도미술박물관	사립	주천면	2012	7,267	523	5,631
	조선민화박물관	사립	김삿갓면	2000	24,440	1,157	6,803
	호안다구박물관	사립	김삿갓면	2007	3,883	280	1,372
호야지리박물관	사립	무릉도원면	2007	1,831	890	2,092	
미술관	국제현대미술관	사립	영월읍	2000	9,203	846	11,244
	쾌연재도자미술관	사립	한반도면	2008	5,808	399	187
생활문화센터	덕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영월읍	2016	-	-	2,000
	한반도생활문화센터	직영	한반도면	2017	-	-	500
문예회관	영월문화예술회관	지자체	영월읍	1992	3,108	-	1,770
지방문화원	영월문화원	지자체	영월읍	1955	273	-	19,350

출처: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4, 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② 영월군 자연 자원

- 영월군은 군 전체 면적의 약 83%가 산지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내륙 산간지대에 위치하며, 동강, 서강 등 주요 하천이 군 전역을 가로질러 수변과 풍부한 침엽수림이 혼재한 지역임.
- 청령포·장릉 일대는 역사문화경관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복합자원으로, 유적과

숲길, 강변 경관이 연계되어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영월군은 「동강 생태탐방길」, 「한반도 지형 둘레길」 등의 걷기 코스를 운영하여 생태·역사·문화가 융합된 친환경 관광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하송리 은행나무 등 생태자원으로서의 천연기념물 6건이 등재되어 있음.

③ 영월군 문화유산

- 영월군의 문화유산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9개와 도지정 문화유산 29개로 총 38개의 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 장릉과 청령포, 한반도 지형은 대표 관광지로서 높고 꾸준한 인지도를 보임.

<표II-35> 영월군 문화재 수

구분	개수	내용
국가지정 (9)	보물	2 -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창절사
	사적	3 - 영월 장릉/ 영월 정양산성/ 영월부 관아
	명승	4 - 영월 아라연 일원/ 영월 청령포/ 영월 한반도 지형/ 영월 선돌
도지정 (29)	유형문화유산	12 - 영월향교/ 자규루/ 관풍헌/ 영모전/ 법흥사징효국사부도/ 법흥사부도/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법흥사석분/ 영월 정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 서곡정사석조약사여래입상/ 영월 만봉불화박물관 소장 시왕도 초본과 사자도 초본/ 영우려 보덕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기념물	6 - 흥녕선원지/ 영월용담굴/ 영월연하굴 /영월대야굴/ 창녕사지/ 영월 세달사지
	무형문화유산	2 - 영월 단종제례/ 영월 칠줄다리기
	문화유산자료	9 -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금강정/ 금몽암/ 민충사/ 영월 주천삼층석탑/ 요선정/ 영월 북쌍리 고택/ 영월 창원리 고택/ 영월 보덕사 해우소
등록 문화재	-	-
합계	38	-

출처: 영월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접속 2025.09.22.), 재구성

④ 기타 자원

- 영월군에는 국내 최초의 탄광촌인 마차리가 있으며, 1935년에 개광한 해당 지역은 1960년대~1980년대를 거쳐 전성기와 쇠퇴를 겪음.
- 이후 2009년 10월 20일, 탄광 문화의 콘텐츠화에 따라 탄광문화촌이 개관함.
- 탄광문화촌은 환영의 장, 탄광문화 교육의 장, CEO 마차골 즐길거의 장, 채탄 현장 체험으로 구성되어 탄광 산업의 부흥했던 시기의 재현, 광부 체험 등이 이루어짐.



(그림II-12) 강원도탄광문화촌 생활관/ 갱도체험관

출처: 영월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접속 2025.09.22.), 재구성

- 이외 영월군에서는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축제는 단종문화제로 58회를 진행하였고, 기간이 가장 짧은 축제인 동강국제사진제도 23회 진행됨.

<표II-36> 영월군 축제 및 문화행사 현황

구분	축제명	일시	내용
전통 민속	단종문화제	매년 4월 중	- 조선제 6대 임금인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 - 전통혼례, 민속놀이(취죽다리기, 힘겨루기, 씨름 등), 문화 예술 공연, 백일장·사생대회, 퍼레이드 등
축제	동강뗏목축제	매년 여름	- 아름다운 동강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체험 관광 한마당을 펼치는 축제 - 뗏목 관련 전통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문화 행사
	김삿갓문화제	매년 10월	- 김삿갓 테마, 문학행사/ 전시/ 공연
문화 행사	동강국제사진제	매년 여름	- 지역경관과 문화 주제의 국내외 사진작가들의 사진 전시
	정월대보름 행사	매년 정월대보름	- 연날리기 대회/창말농악 지신밟기/전통 민속놀이/ 달집 태우기 등 전통 민속 요소 중심

■ 영월군 관광활성화지수⁸⁾

- 영월군의 관광활성화 지수는 2023년 6월(19.3%) 대비 2024년 5월(19.9%) 소폭 증가하였음.

<표II-37> 영월군 관광활성화 지수

2023년							202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9.3	20.2	19.6	18.8	17.6	19.3	20	19.2	18.3	19.8	19.6	19.9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접속 2025.09.22.), 재구성

8)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관광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관광 빅데이터(신용카드, 이동통신, 내비게이션)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방문객의 관광 활동을 통해 관광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유지되고 성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지수

- 영월군의 관광활성화지수는 필리핀인 방문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2022년 영월군과 필리핀이 맺은 농업 계절근로자 협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II-38> 영월군 관광활성화 지수 지표

구분	핵심요인	핵심요인값
방문자 수	현지인 방문	15.3
지출 금액	여행업 지출	39.1
숙박일 수	1박 숙박	13.7
성/연령별 방문	60대 남성 방문	25
관광 목적지	체험관광 관심도	58.1
방한 외국인	필리핀인 방문	94.8
17개 시도 유입	대구 유입	84.3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접속 2025.09.22.), 재구성

■ 영월군 예술활동증명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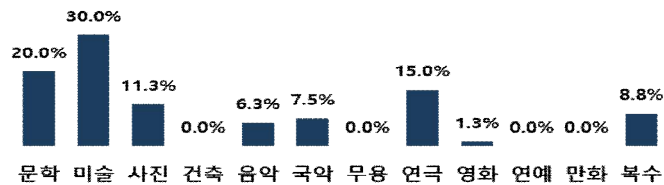
- 2025년 9월 기준, 강원도는 총 4,307건의 누적 예술활동증명 건수가 있으며, 그 중 영월군은 총 80건(1.86%)으로 이는 강원도 중위권인 9번째에 해당
- 예술활동증명 비율이 가장 높은 춘천(0.40%)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임.

<표II-39> 강원도 예술활동증명 현황 (2025.09.22. 기준)

구분	합계	유효	만료	특례	비율(%)	총 인구수	인구수 대비 유효비율(%)
강원도	4,307	3,696	410	101	100%	1,509,670	0.24%
영월군	80	74	6	0	1.86%	36,334	0.2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접속 2025.09.22.), 재구성

- 영월군의 예술활동증명 분야는, '미술'이 30.0%로 가장 높고, '문학' 20.0%, '사진' 11.3% 순으로 나타남. 한편 '건축', '무용', '연예', '만화'는 0.0%로 나타남.



(그림II-13) 영월군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접속 2025.09.2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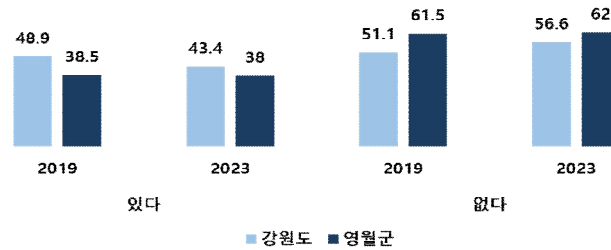
9) 예술활동증명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예술활동증명에는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3종류가 있음.

3) 영월군민의 사회인식¹⁰⁾

■ 문화와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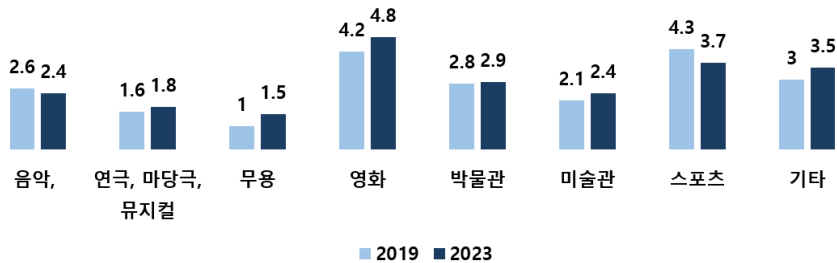
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영월군 주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9년 38.5%에서 2023년 38.0%로 감소하였으며, 강원도민의 관람률도 2019년 49.9%에서 2023년 43.4%로 감소함.



(그림II-14) 문화행사 관람률

-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화 관람은 2019년 4.2회에서 2023년 4.8회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박물관, 미술관 등 음악·연주회, 스포츠 관람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소폭 증가함.



(그림II-15)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② 여가생활/활동 만족도

- 영월군 주민의 2019년 전체 만족도는 '만족' 18.7%, '보통' 56.4%, '불만족' 24.8%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만족' 12.8%, '보통' 64.1%, '불만족' 23.1%로 조사되어 만족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보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9년에 기준으로 불만족 사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나, 건강과 시설 부족 연유가 이어지는 것도 주목해야 함.

10) 2018년~2024년 사이 등재된 <영월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II-40> 여가생활/활동 만족도

구분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이유(%)								
	만족	보통	불만족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수단 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취미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음	동행자 없음	기타
2019	18.7	56.4	24.8	34.8	32.1	2.4	9.9	1.3	4	13.9	1.3	0.3
2023	12.8	64.1	23.1	미진행								

*2019년은 '문화와 여가'의 세부항목으로 '여가생활 만족도'가, 2023년은 '주관적 웰빙과 여가'의 세부항목으로 '여가활동에 관한 만족도'가 조사되어 두 결과를 비교함.

*2023년은 불만족 이유를 조사하지 않음.

■ 안전

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영월군 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2018년과 2024년 모두 낮은 수준임.
-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2018년 7.3%에서 2024년 8.7%로 소폭 증가했고, '두렵지 않다'는 44.4%에서 74.5%로 크게 상승함.
-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2018년 12.7%에서 2024년 15.8%로 다소 증가했으며, '두렵지 않다'는 39.1%에서 68.5%로 크게 상승함.

<표II-4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구분	밤에 혼자 있을 때(%)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다	두렵지 않다
2018	7.3	44.4	12.7	39.1
2024	8.7	74.5	15.8	68.5

②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2018)/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2024)

- 영월군 주민의 안전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전반적인 '사회안전'과 범죄위험·교통사고·화재 등의 주요 영역에서 모두 '안전하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불안하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신종 전염병에 관한 안전의식은 유일하게 불안이 높아졌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임.

<표II-42> 안전 환경 및 지역사회 안전 평가

구분	전반적인 사회안전	먹거리	정보보안	범죄위험	화재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보안	신종전염병	교통사고	
2018	안전	45.7	44.4	41.2	40.7	35.7	50.1	41.2	43.2	33.3
	불안	11.8	14.9	16.7	25.9	25.7	10.6	16.7	18.2	28.8
2024	안전	58.1	58.1	45.1	54.4	48.8	60.1	45.1	34.5	52.1
	불안	6.7	6.1	16.2	12.7	17.0	7.5	16.2	28.2	12.5

■ 사회통합

① 일반인에 대한 신뢰

- 영월군민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2019년과 2024년의 제시문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유보적 상황까지를 포함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신뢰할 수 없다'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짐.

<표II-43> 일반인에 대한 신뢰

구분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뢰할 수 없다	모르겠다
2019	33.5	55.8	6.0	4.6
2024	완전히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4	39.1	48.8	10.8

*2019년과 2024년의 범주가 다름.

②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영월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전반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감이 2019년 5.9점에서 2024년 6.30점으로 소폭 상승하고, 생활 만족감과 하는 일의 가치가 만족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II-44> 삶의 만족감과 정서 경험

구분	삶에 대한 만족(점)			정서경험(점)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가치		행복	근심, 걱정	우울
2019	5.9	6.1		6.0	4.3	3.7
2024	삶에 대한 만족	지역 전반적 생활	하는 일의 가치	어제의 행복		어제의 걱정
	6.30	6.18	6.35	6.39		4.34

③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 영월군 주민의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에 비해 2024년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II-45>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구분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있다	없다
2019	77.9	22.1
2024	78.5	21.5

④ 지역 거주 기간 - 정주 의사

- 영월군에 20년 이상의 거주한 사람은 2019년 76.3%에 달했으며, 2023년의 조사에서도 58.8%로 높게 나타남.
- 지역의 장기거주자가 많은 것은 강원도 내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20년 미만의 거주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주요한 지점임.
- 전체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사망 등과 연계된 부분이나, 10년 미만이 14.9%에서 23.0%로 상승한 것도 주목해야 함.

<표II-46> 지역 거주 기간

구분	*거주 기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2019	14.9	8.9	*76.3('20년 이상' 일괄 응답 결과)			
2023	23.0	18.2	11.0	8.3	9.0	30.5

*2019년은 '5년 미만~20년 이상'을 5년 단위, 2023년은 '10년 미만~50년 이상'을 10년 단위로 조사함. 이에 '50년 이상' 거주자의 높은 수치 등의 특이점이 있는 2023년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반면,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강원도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매우 그렇다'가 '그런 편이다' 혹은 '보통'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어남.
- 이를 종합해보면, 근래의 유입 인구들이 영월을 정주가 아닌 일시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표II-47> 지역 정주의사

구분	향후 10년 이후에도 강원도에 계속 거주(%)					향후 10년 이후에도 영월군에 계속 거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19	58.8	28.4	10.0	3.1	0.4	미진행				
2023	36.7	37.4	15.2	5.8	4.8	35.7	37.1	14.1	6.9	6.1

⑤ 거주 지역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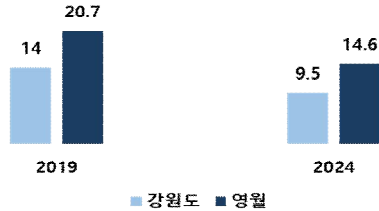
- 영월군민의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약간 있다'가 줄고, '매우 있다'와 '별로/전혀 없다'가 늘어나는 추세로, 응답이 극단으로 이동하고 있음.

<표II-48> 거주 지역 소속감

구분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매우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2022	23.8	61.5	12.6	2.0
2024	28.7	49.8	18.8	2.7

⑥ 자원봉사활동 참여

- 영월군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강원도 전반에 비해선 명확하게 높으나, 2019년 20.7%에서 2024년 14.0%로 감소함.



(그림II-16) 자원봉사 전체 참여율

⑦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수용도)

- 영월군 주민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2022년 대비 2024년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다문화가족에 관한 수용도가 가장 높고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관한 수용도가 유난히 낮은 편임.
- 영월군 주민의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강원도와 비교할 때, 영월군이나 강원도 모두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영월군의 상승 정도가 강원도보다 높게 나타남.

<표II-49>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구분	전체	장애인	결손가정자녀	다문화가족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2022	강원도	2.28	2.66	2.95	2.77	1.31	1.60	2.39
	영월군	2.08	2.44	2.61	2.51	1.27	1.40	2.23
2024	강원도	2.30	2.69	3.02	2.86	1.26	1.53	2.45
	영월군	2.25	2.61	2.85	2.87	1.31	1.42	2.42

⑧ 외국인에 대한 인식

- 다문화사회로의 확장으로 인해 2024년 사회조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영월군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강원도 전체보다 미미하게 낮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 수용도에 비해 정책적 인지가 낮은 것이 특징임.

<표II-50> 외국인에 대한 인식

구분	친구가 될 수 있다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강원도	3.17	3.20	2.80
영월군	3.05	3.04	2.73

<표II-51>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구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	2.68	2.91	2.59
영월군	2.72	2.86	2.70

■ 지역 문제 해결

① 인구 유입 방안

- 영월군민의 인구 유입 방안에 관한 응답으로는, 2019년과 2023년에서 모두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눈에 띄게 상승함.
- 또한, 농촌의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수요가 2배 이상 상승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읍·면 단위에서는 산업 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 정책설계나 공약 수립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표II-52> 인구 유입 방안

구분	단위	인구유입방안(% 부분)					
		기업체 유치	귀농·귀촌 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	교육 환경개선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2019	군	30.0	13.0	9.2	5.1	21.5	3.1
	읍	27.7	8.4	9.1	5.1	28.2	1.7
	면	32.9	19.1	9.3	5.0	12.8	4.9
2023	군	48.1	16.1	22.5	11.6	31.3	5.7
	읍	60.2	11.8	21.4	12.1	32.6	6.0
	면	33.3	21.3	23.8	11.1	29.7	5.4

- 인구 유입 방안에 관한 조사 항목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는데, 기존 항목이 대상자를 한정하는 내용에서 도시 인프라 전반에 관한 관점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표II-53> 사회조사에서 인구 유입 방안에 관한 관점 변화

구분	2019년 항목	2023년 항목
2019년 대비 2023년의 조사 항목	출산 장려 지원 정책 청년창업 지원정책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유치	지역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 다문화 가정 지원 강화 문화 및 의료시설 확충

② 군의 대표 관광지(18)/영월군 대표 관광지(24)

- 영월군민이 생각하는 군의 대표 관광지는 2018년과 2024년 모두 장릉과 청령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김삿갓 유적지 및 문학관과 별미로 천문대와 같은 문화시설에 관한 응답이 상승한 것에 반해 어라연(16.2%▶12.7%), 한반도 지형(16.1%▶8.4%) 등 자연경관 관련 응답은 감소함.

<표II-54> 영월군 대표 관광지

구분	장릉	청령포	고씨굴	김삿갓 유적지	별미로 천문대	선들	어라연	한반도 지형	법흥사	요선암, 요선정	태화산	백덕산	잘 모르겠음	기타
2018	31.3	20.1	9.3	1.6	8.8	1.6	2.7	16.1	4.4	2.1	0	0	-	1.8
2024	28.4	25.8	4.8	3.3	17.7	2.4	1.2	8.4	4.9	1.1	-	-	0.5	1.4

③ 관광 활성화 방안

- 영월군민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은 2019년을 기준으로 ‘홍보 마케팅 강화’(34.1%), ‘대중교통 정비’(19.5%), ‘신규 관광자원 개발’(17.9%)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홍보 마케팅 강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축제·문화 예술 행사 발굴’과 ‘대형 숙박시설 유치’에 관한 수요도 증가함.
- 반면 ‘대중교통 정비’(19.5%▶12.3%), ‘문화 및 관광시설 정비’(14.7%▶11.2%)로 감소하는 등 하드웨어 투자는 줄어들고 있음.

<표II-55> 관광 활성화 방안

구분	홍보 마케팅 강화	대중교통 정비	대형 숙박시설 유치	신규 관광자원 개발	문화 및 관광시설 정비	새로운 축제, 문화예술 행사 발굴	잘 모르겠음	기타
2019	34.1	19.5	3.5	17.9	14.7	9.6	-	0.85
2024	46.6	12.3	6.2	10.0	11.2	12.9	0.3	0.4

4) 영월군 도시분석 종합 시사점

■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 등 각종 도시문제 대응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 영월군은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라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를 넘어, 전체 인구의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산업·경제적 여건도 취약한 편임.
- 이에, 군정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활복지, 농업의 개선, 문화관광 등이 강조되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관광은 콘텐츠 개발을 넘어 정주 인구의 지역 애착과 지역문화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임.
- 각종 위기에도 거주인구의 지역 정주 의사가 꾸준히 높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
- 반면, 영월군의 주요 문화사업은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행사성 축제가 두드러지고, 주체성과 인식을 높이는 사업은 제한적이라 그 성과가 단절될 위험이 있음.
- 도시 위기에 문화적 대응으로써 문화정책의 성과를 체화하고 정주 생활을 통해 이어갈 문화적 주체인 영월형 오피니언 리더의 양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생활권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사업의 다변화

- 영월군은 영월읍에만 전체 인구의 53.8%가 거주하고 각종 도시 인프라도 집중되어 있어 생활권별 문화·예술 경험의 접근성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각종 정책 수요 조사에서 군·읍·면의 결과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은 생활권별 문화적 경험의 기회와 인식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지속적인 감소 이유로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난 것,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 등은 군민의 사회적 고립감이나 군내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인 ‘문화광산 영월’과 ‘구석구석 문화영월’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적절함.
- 이에 생활권별 문화 격차의 해소와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간 연결을 촉진하는 사업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자원에 관한 해석과 접근 방식의 확장

- 영월군은 각종 생태자원과 국내 최초의 탄광촌 등 잠재적 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적확히 활용하는 문화적 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움.
- 가령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는, 짧게는 23회, 길게는 58회차를 기록한 축제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는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문화도시센터 소관의 사업임.
- 이에 문화·예술 향유의 단계별 접근이나 주체에 관한 향상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관련 경험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의 문화행사는 참여자의 주체적인 참여 경험과 생활에서의 순환이 일어났을 때 지속가능성이나 지역 활성화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며, 이런 현상의 집합이 곧 지역의 문화생태계 혹은 문화적 역량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영월군은 생태, 사람, 시설 등 각종 문화자원에 관해 기성 접근 방식을 넘어선 해석과 실험, 정책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증진

- 영월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등록인구가 4만 명 미만을 기록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이전인 2004년, 행정적 효율성을 위한 「영월군반 운영규칙」(2025년 「영월군 반설치 조례」으로 제정)을 제정한 바 있음.
- 영월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광산업 촉진,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 고교생 기숙사비 지원, 귀농·귀촌 유도 정책 등을 추진해왔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과 각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 외국인에 관한 인식은 상징적인 영역인데, 이에 관해 지역이 아닌 개인적 차원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영월군의 현재 문화다양성 인식은 지역문화로서의 정착보다는 개인적 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구의 안정화는 도시 내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구축과 함께 구체적인 관계 형성,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포용력 증진을 통해 지속될 수 있음.
- 이에 영월군의 현안을 주체적으로 관찰하고 미래를 구체화할 지역 주체의 관계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다양성 증진 활동이 필요함.

■ 인접 지역과의 문화 협력망 구축

- 영월군은 4면이 모두 다른 지역을 맞대고 있어 제천이나 원주와 생활권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고, 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영월군·홍천군·횡성군·평창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된 바 있음.
- 근래 국내 사회는 일부 대도시에서조차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에 대한 위기를 감지하고 각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이처럼 현재 국내 사회는 ‘지역’에 관한 보다 유연한 관점과 협력적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임.
- 문화정책은 인구 유출을 막거나 대량의 장기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긴 어려우나, 사회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임.
- 이에 영월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군 전반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계 인구가 문화적 욕구에 따라 주변 지역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 접경지역 간 문화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3. 영월군민과 문화다양성

1) 영월군 지역문화 당사자 그룹인터뷰(FGI) 개요

■ 영월군의 전략으로서 문화다양성

- 영월군의 도시 현황과 사회조사를 통해 그 특성을 도출했을 때, 인구 감소와 산업의 쇠퇴, 생활권별 문화적 격차에 따른 사고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영월군의 도시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자원에 관한 관점의 확장과 도시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도시의 활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아우르는 대표적 방안으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이 있음.
- 문화다양성 증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해당 범위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과 미시적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여 영월군민 대상의 FGI를 진행함.

■ 그룹인터뷰(FGI) 개요

- 그룹인터뷰 대상자는 ①영월군에서 5년 이상 생활 ②영월문화도시 사업 참여 경험 ③영월문화도시와 협력 및 유관 기관 종사자라는 기준을 두고 2개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영월군민을 섭외하여 2개 그룹으로 분류함.

<표II-56> 그룹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일시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	10월 28일(화) 13:00	각 1시간 30분 내외
	영월문화도시 연계 기관, 협력기관/단체 관계자	10월 28일(화) 15:30	
장소	- 문화도시영월 센터 회의실(10명 수용 가능한 실내 공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13		
목적	- 도시조사를 토대로 군민의 사회문화 의식 및 미시적 이슈 도출 - 설문조사 조사원 연계 및 핵심 네트워크 강화		



(그림II-17) 그룹인터뷰 모습

- 도시의 개방성이 주요 이슈임에 따라, 영월군민의 정체성과 관찰자의 관점이 적정히 혼재될 수 있도록 거주 기간 10년 미만의 이주민과 귀향인 특성을 반영함.
- 그룹인터뷰 결과의 분석은 앞선 도시분석과 결부하여 각 이슈를 도출함.

<표II-57> 그룹인터뷰 대상자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소속/참여 프로그램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 13:00 ~14:30	신희정	여	57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100만원 실험실, 시민강사 등
	김현진	여	51	농촌유학, 이주민 프로그램, 예술인협동조합 사소한 기록소 등
	황소연	여	44	이주민, 독서모임으로 진입, 사소한 기록소 등
	김상범	남	41	영월출신, 귀향, PD출신, 우리동네문화충전소 촬영 총괄,
유관기관 및 단체 15:30 ~17:00	김도형	남	42	영월(주천)도시재생센터 3개월 차, 양조사업 담당자
	김서량	여	54	영월군가족센터, 교류소통공간, 문화다양성 사업 등
	임화옥	여	45	마을선생님협의회 활동
	배은정	여	56	마을선생님협의회 활동

2) 영월 지역문화 당사자 그룹인터뷰(FGI) 결과

■ 영월군의 지역 특성과 갈등 요인

① 농촌 기반 소도시로서의 보편적 특성을 갖춘 지역

- 영월군은 4만 미만의 소도시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을 기점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37.3%에 달함.
-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영월읍에 거주하며, 주요 기관,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도 읍내에 집중된 전형적인 지역인 동시에, 각 면·리의 인구 비율이나 의식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천혜의 자연경관과 낮은 인구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유입되는 인구가 지역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주민, 유학생, 관광객 등의 외지인에게 낯을 가리는 일이 자주 있으며, 특정한 활동에서부터 장을 보거나 식당에 방문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가리지 않고 감지됨.
- 영월초등학교, 영월중학교, 영월고등학교로 구성된 학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유대감이 직간접적으로 외부인의 진입 장벽 요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타지에서 귀향한 영월 태생인 이들에게까지 적용되기도 함.
- 군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일정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학부모, 아파트 특정 동의 주민 모임, 문화 관련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모임 등 다양한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 군집 단위의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지역에 대한 인식은 읍내와 면·리 간의 차이뿐 아니라 면·리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이주민의 비율과 학군의 영향을 많이 받음.

“생활하다보면 낯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말투도 좀 투박한 편이고 어디 가게에 들어갔는데 인사도 안 해 줄 때도 많아요.”

“영초, 영중, 영고를 꼭 나와야지 로얄이라는 등 다른 학교는 쳐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농촌 유학으로 영월초등학교만 고집하는 게 유행인 때도 있었어요.”

“조금 친절하다 싶은 분들은 타지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이주민인 경우가 많아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더 큰 도시에서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② 이주 요인 유형의 전형과 커뮤니티 간 단절에서 오는 갈등의 강화

- 응답자들이 영월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한 기간은 3개월에서 18년까지 다양하나, 이주 요인은 직장 전임, 귀농·귀촌, 결혼 이주, 농촌 유학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지역 정착 초기 소속되는 커뮤니티의 근거로 작용함.
- 농촌 유학이 활발해지면서 이주자들 사이엔 서로의 거주 예정 기간을 묻는 것이 예사로 나타나며, 토박이, 장기 거주자, 정착 예정자와 단기 거주자들 간의 단절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함.
- 농촌 유학 가구, 결혼 이주 가구 등 이주자의 가구 형태나 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강한 구심력으로 작동하여, 커뮤니티 간의 상호 관심이 적고 개인 여러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음.
- 특히 이주 관련 정책이나 청년 지원정책에서의 지원금, 이주민 대상의 정착 지원금 등 현물 지원 관련은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의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
- 정선 카지노 등 높은 임금 직종의 종사자들은 고가 브랜드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나 계급문화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함.
- 정주와 이주 전형에 따른 커뮤니티의 형성과 그 단절은 계토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한정적인 지역거점, 개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인구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가 근거리에 자리하면서 더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다만, 고가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초기 아파트의 거주자들 사이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형성되어있던 이웃 문화가 이어지고 있기도 함.

“나는 20년 넘게 세금을 냈는데 청년도 아니고 65세도 아니니까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피해자 같은 느낌으로요.”

“신천초등학교가 있는 한반도면은 농촌유학을 오신 분들이 50% 이상인 것 같아요. 엄마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넌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이런대화를 많이 하죠.”

“00아파트의 한 동이 있는데, 거기 사는 분들은 다 직장이 같아요. 어느 날은 그중 한 집에서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았더니 그 동 사람들이 전부 대리석 바닥으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사셨던 분들은 어디서 장 보고 오다가 마주치면 어디 갔다 왔냐, 뭘 그렇게 많이 샀냐 같은 일상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자연스럽게 좋아요.”

③ 문화다양성에 관한 감수성과 현상의 간극

- 2025년 9월 기준, 영월군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 7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다문화 가구 원은 9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공공기관의 홍보물에서 다문화 가구와 비다문화 가구를 필요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영월에 정착한 지 10년 이상인 이들도 고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사가 오가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남.
- 가족센터 개소 14년 차에 개소 이전부터 정착한 외국인 이주민을 고려했을 때, 1~2세대 시기에 걸친 문화융합이 일어났을 거라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감수성 지수를 확인하고 통합된 언어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귀농·귀촌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모인 지역의 경우, 군 차원의 문화사업이나 이주자 정책 등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고령화의 속도는 문화·예술이나 교육 현장에서도 실감 날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 문화적 대응을 모색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는 기초학습 부진과 저소득층 아동을 특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됨.
- 귀농·귀촌, 농촌 유학 등 유사한 이주 유형 내에서도 거주 기간과 지원 내용의 차이가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함.

“예전엔 일반 가정이란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하던 게 지금은 다문화·비다문화 가정이 됐거든요. 다문화 관련한 말들을 홍보나 안내에 쓸 때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 구별 자체가 영월에서 오래 산 결혼 이민자들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영월에 와 땅도 사고 집도 지어 사는 분들은 관광지로 소개하거나 주민을 모으는 활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직접 말씀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수업을 하면 작년엔 오셨던 분들이 올해는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거동이 불편해지신 거죠. 토박이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요.”

“농촌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기존의 영월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돌아요. 유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혜택들이 영월에서 죽 사시던 어머님들에게는 불만거리가 되는 거죠.”

■ 지역 문제의 해소방안으로서의 문화정책

① 문화정책은 도시의 개방성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식

- FGI의 참여자들은 문화도시의 추진은 일상적인 만남, 먹거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문화도시가 들어서기 이전의 영월의 문화정책이나 관련 사업은 향유에 집중되어 있거나 다소 계몽주의적 시선으로 추진되었는데, 도시 실험이나 서포터즈 등 참여양상이 달라진 사업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변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주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영월에서의 삶을 내재화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문화도시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영월에 ‘스며들어’ 지역애착이 상승하는 것을 실감함.
- 영월에서의 문화정책 효용감을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한 것은 ①문화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 확보 ②단순 공급이 아닌 발산과 순환을 촉진하는 문화정책 ③단절감을 해소하는 연계와 협력 기반의 문화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음.

“기존의 영월에도 여러 시도가 있긴 했는데 토박이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활동이 폭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이 확장된 거예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엔 자본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문화도시 서포터즈로서 행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영월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밋밋하기만 했던 영월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 나이가 60이 가까워졌는데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다른 지역 친구들한테 부럽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② 다양한 단위의 단절감과 갈등 해소 효과의 확산 필요

-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사업에 참여했을 때의 지역 애착과 자기효능감, 성취감 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산하고 있으나, 초기 진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타나며, ①기존 경험자들과의 교류 어려움 ②문화 활동에 자발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주요 요인으로 꼽힘.
- 현재 문화도시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도 진입 당시에는 기존 참여자들과의 경계를 강하게 느꼈으나, 참여 시간의 누적을 통해 경계가 자연스레 허물어짐.

- 재단이나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문화도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도시 경험 여부가 단절감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이는 문화도시 사업에의 참여도 소도시 특유의 폐쇄성과 낮가림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경계심이 해소되는 과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사업의 심도 있는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인지 변화를 실감하는 데는 1년, 지역의 변화를 느끼는 데는 약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 문화사업에의 참여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동력은 프로그램의 참여에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①향유단계 변화와 ②유형에 상관없는 지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실감할 때 극대화됨.
- 문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서는 초기 정착 혹은 일상에서 감지되는 지역 특유의 폐쇄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공통으로 나타남.
- FGI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현재 영월군은, ①타인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경계심과 ②커뮤니티 단위의 단절감이 지역살이에 관한 내외적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그 경직도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며, 고관여 주체들은 경계와 단절을 해소하는 데에 문화정책이 분명하게 기여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3년 내외로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확산하는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지며, 이는 영월군 전반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활동 내용만 봤을 때는 저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았는데, 막상 가니까 저만 처음 온 사람 같더라고요.”

“문화도시나 재단은 홍보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잘 안 오세요. 혼자 적극적이긴 아무래도 힘드니까 아는 사람이 부르거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초기엔 기획된 프로그램의 참여자였다가, 그 다음엔 기획자로 모임을 직접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진행하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자기 지인들을 소개해 주면서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일단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④ 문화적 경험의 수준과 다양성을 확장하고 축적하는 기회 필요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월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기획의 다양성에는 반드시 질적 수준의 향상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 더하여, 현재 영월군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들은 성인가요와 경품 추첨이라는 형식으로 전형화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

- 공공의 문화행사가 전형화되는 것은 해당 지역이 기성 수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지 않을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임.
- 이는 보호자의 성향과 적극성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성장을 저하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이동과 정보 습득이 자유로운 이들의 유출을 일으킬 수 있음.
- 이런 현상의 반복은 세대 간, 생활권별 문화적 단절감을 강화하며 결론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저하하는 것으로 이어짐.
- 이에 문화적 경험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문화다양성 증진의 일환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FGI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양질의 문화적 경험을 만들기 위한 요건은 ①적정한 예산 ②기획력 강화 ③협력 관계 확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적 경험은 단기간 혹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과 축적을 통해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는 ①초반 동력 확보 ②주체의 발굴과 유입 ③자발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성사됨.
- 응답자들은 모임의 운영이나 협력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정책의 고도화 효과와 지역에서의 자기효능감 상승을 동시에 경험함.
- 이에, 문화도시를 통한 참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마을선생님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와 영월문화도시의 협력 관계가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영월에서의 문화적 경험의 질적 성장을 일으키고 그 효과를 확산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때라 여겨짐.

“문화다양성은 경험하는 만큼 경계심이 느슨해진다는 걸 저는 알 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뿐이어도 얼굴을 보는 일이 쌓이면 변화하는 게 눈에 막 보여요”

“선생님들이 제각각 흩어져있을 때보다 연결되었을 때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죠.”

“부모가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트로트랑 경품추첨만을 보며 자라야 하는 거예요.”

“활동을 2년, 3년 이어가니까 범위도 시야도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해졌어요. 언젠간 문화도시 사업이 끝나겠지만, 그 이후로도 저는 영월에서 살아갈 거고 지금 쌓고 있는 소양으로 앞으로 영월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요.”

■ 그룹인터뷰(FGI) 결과 종합

① 영월군과 군민의 특성

“

소도시 특유의 낯선 문화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감지

”

- 농촌 기반 소도시로서의 보편적 특성을 갖춘 지역임.
- 외지인, 이주민, 낯선 문화에 관한 높은 민감도와 낮은 포용성이 감지됨.
- 커뮤니티의 형성에는 정주 및 이주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함.
- 커뮤니티 간의 교류나 개인이 여러 커뮤니티를 오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생활권, 소속집단, 출신에 따른 단절감으로 이어지기도 함.
- 공공의 행사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다양성에 비해 낮은 문화다양성 감수성이 감지되는 경우가 있음.

②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

문화적 경험은 개인과 집단의 개방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확산 기회 필요

”

- 각종 문화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경계심 완화와 포용력이 강화됨.
- 특히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협력은 구체적인 성과 향상과 다변화로 발현됨.
- 다만 영월군에서의 문화적 경험의 다양성과 접근성은 보완이 필요함.

③ 문화다양성 감수성과 도시 역량

“

분산된 문화다양성 감수성의 연결로 도시 전반의 쇄신 기대

”

- 개인의 문화적 경험은 주체성의 강화 과정에서 ‘역량’으로 전환되며, 그 효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함.

- 네트워크로 퍼진 경험은 주체 간의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과의 창출과 효과 범위의 확장을 일으킴.
- 개인이나 내집단 위주의 문화적 역량이 고유성을 기반하고 있다면, 지역은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것으로 도시 전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단,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①적합한 예산 마련(문화 예산으로서의 당위 확보) ②주체성과 환류의 정책 설계(일방적 공급 관점 지양) ③기획력 강화(설계)가 필요함.
- 현재 감지되는 영월군 내의 각종 단절감은 일종의 내집단 편향인데, 이는 교류 기회를 통한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자극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임.

III

영월형 문화다양성

사업과 지표 개발

Ⅲ. 영월형 문화다양성 사업과 지표 개발

1. 문화다양성 기반 도시를 위한 영월군의 접근

1) 문화다양성 기반 도시를 위한 사업 관점

■ 영월형 문화다양성 접근 방식 탐색

- 이 연구는 영월군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진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도시 특성을 파악하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등으로 도시 특성을 도출함.
- 영월군의 산업 기반과 도시 의제, 영월군의 문화환경, 영월군민의 사회의식 등을 우선 분석하여 거시적 특성을 파악함.
- 이를 토대로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여 영월군의 미시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및 지표개발의 기초자료를 축적함.

<표Ⅲ-1> 영월군 도시 특성 도출 과정

구분	내용	조사방법
영월군 도시현황	- 역사, 지형 등 비시간적 특성 - 인구 현황, 산업 등의 통계	- 군정 관련 보고서 - 국가통계
영월군 문화환경	- 영월군정, 관련 기관 및 조례 등 정책 추진 여건 - 문화기반시설 및 유산, 자연자원의 통계 - 관광 여건, 예술인 등의 통계	- 군정 관련 보고서 - 국가 및 관련 기관 통계
영월군 사회인식	- 문화, 안전, 사회통합에 관한 의식의 변화 -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문화자원 인지도	- 영월군 사회조사 분석
영월군민 의식	-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바라본 영월군민 의식 - 영월군의 거시적 이슈와 미시적 이슈의 맥락화	-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 인터뷰 - 기관 및 단체 소속자 인터뷰

■ 영월형 문화다양성 접근의 전제

- 문화다양성은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공존하는 사회의 기본 인식인 동시에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감수성의 확장”을 의미함.
- 이에, 한 지역사회가 문화다양성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하나는, 문화다양성은 기존의 질서와 상식에 새로운 도전을 포함하고 있어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즉, 문화다양성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군민들의 동의를 통해 확산할 수 있으며, 이럴 때만이 영월군의 지역사회 문제 해소는 물론 개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또 다른 전제는, 문화다양성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사람의 문화적 환경과 의식, 인식 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영월군의 문화다양성은, 관련 이론과 정책이 성숙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선불리 반영하기보다 한국과 강원도, 다시 영월군이라는 고유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접근할 때 비로소 타당해짐.

<표Ⅲ-2> 문화다양성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구분	전제	내용
전제1	사회적 합의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
전제2	지역이 고유성	지역의 역사와 사회경제적인 조건, 문화환경, 지역 이슈에 기반

■ 영월형 문화다양성 접근의 2개 사업

- 본 연구는 이러한 영월형 문화다양성 접근의 전제를 충실히 따르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함.
- 진행한 사업은 2개 영역으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초기 사업에 해당함.

<표Ⅲ-3> 영월형 문화다양성 2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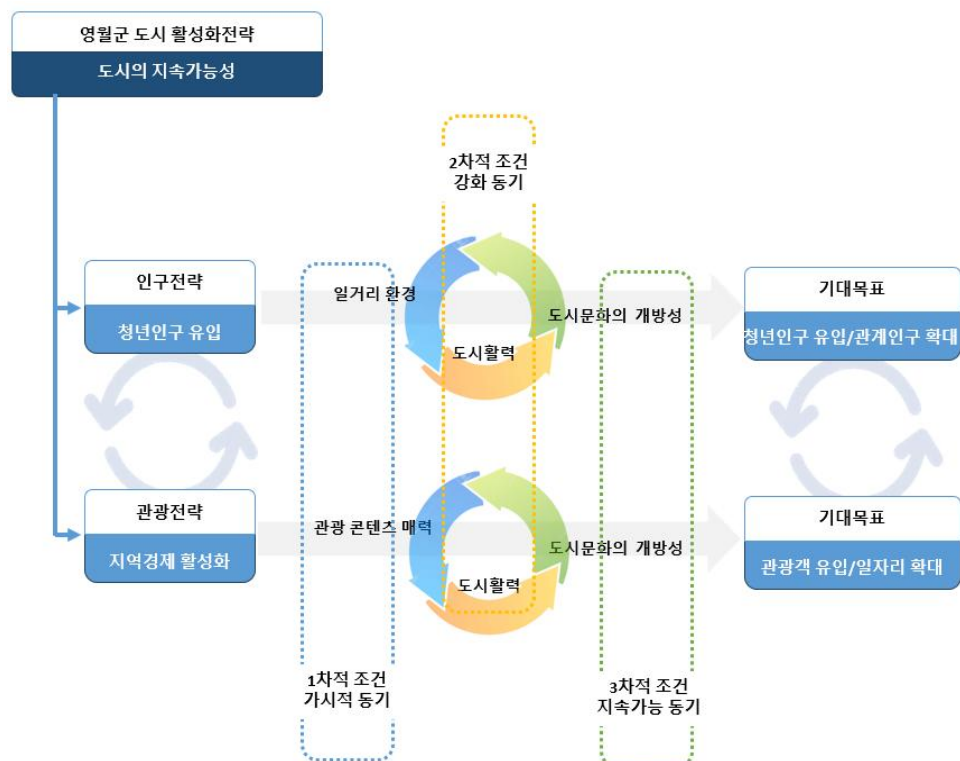
구분	전제	비고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 영월군민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영월군민 마을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활용	프로그램 개발 수행 (마을 워크숍 운영은 별도 사업)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월형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통한 조사로 결과 도출	본 연구에서 수행

2) 문화다양성 기반 도시를 위한 사업 설계 원칙

■ 영월군 사회경제적 토대 기반 원칙

- 본 연구는 영월형 문화다양성 사업을 설계에 앞서,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고 구조적인 환경과 영월군이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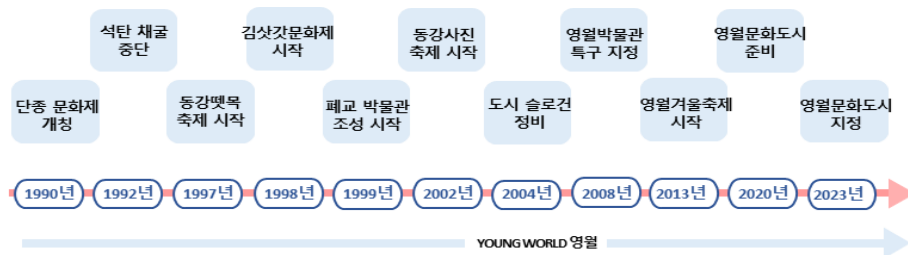
- 이는 영월군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년 동안 고려해 온 내용으로, 영월군은 이에 대한 도시 전략으로 인구전략과 관광전략을 수립해왔음.
- 청년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인구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관광 전략'은 꾸준한 추진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도시의 변화를 이끌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함.
- 인구전략에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도시 매력”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의미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전략 여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또한 관광전략에 있어, 영월군이 가진 풍성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풍경 이상으로 남지 않은 자연경관, 단종이나 김삿갓을 비롯한 각종 박물관 콘텐츠의 한계 등으로 단기적 관광지로 그치고 있음.
- 인구전략과 관광전략이 정체되거나 확장되지 못하는 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인구 혹은 관광객의 유입 요소가 될 '도시 활력' 자체에 주목해야 함.
- 도시에 활력이 넘치는 핵심적인 원리는 다양성과 개방성이며, 다양한 문화와 개인 정체성에 수용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소란'을 일으킴.
- 이 '소란'은 도시에서의 새로운 시도,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낯설거나 소외된 것들을 새로운 도시 주체로 끌어내는 기능으로 환원되어 도시의 발전을 일으킴.



(그림Ⅲ-1) 영월군 도시 전략으로서 인구와 관광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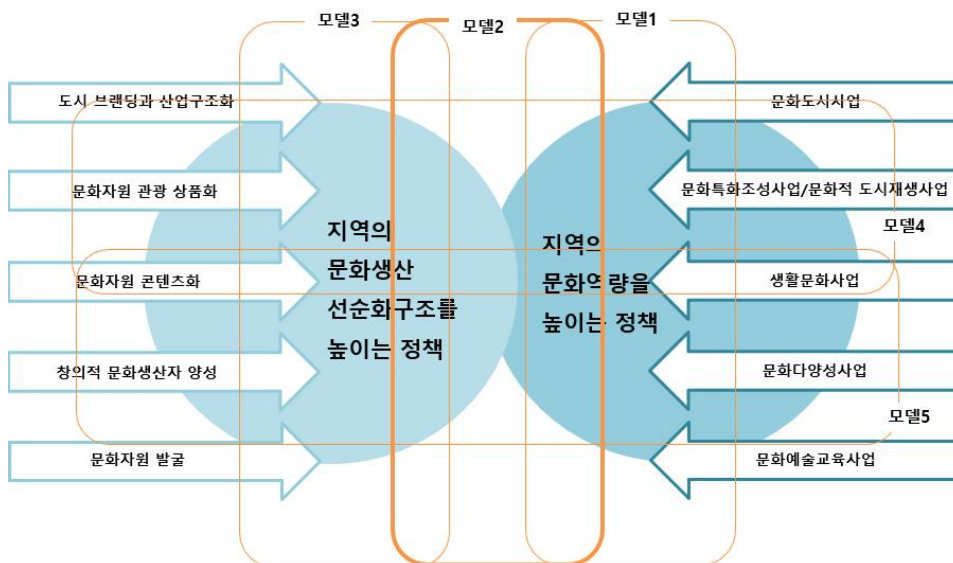
■ 영월군 도시 문화실험 기반 원칙

- 영월군은 2020년부터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영월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함.
- 석탄산업의 퇴조로 인해 지역경제가 와해 된 영월군의 군정 슬로건은 오랫동안 영월드(Young World)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월군으로의 젊은 층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근거가 됨.
- 또한 고씨동굴, 어라연 등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전략과 단종 관련 유적인 청령포와 장릉, 김삿갓을 활용한 역사문화전략,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활용한 박물관 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그림Ⅲ-2) 영월군의 문화적 노력

- 영월문화도시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시작된 것이며, 영월군을 “어두운 석탄 광산에서 빛나는 문화광산”으로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문화전략이라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문화적 경험이 많지 않은 영월군은 표면적인 사업과 함께, 군민의 문화의식, 문화기획자 양성, 지역내 문화사업 실행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과업이 있음.
- 따라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관점에 기초한 지역 문화생태계 재구성이 필수적임.



(그림Ⅲ-3) 영월문화도시의 모델

■ 영월군 인구 구성 기반 원칙

- 영월군의 도시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 영월군의 인구구조와 분포 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
- 그러나 영월군은 인구는 3.6만 명 수준으로 인구수에 근거한 도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이며,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으로 정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하는 귀농·귀촌 사업 외 일시적인 관계인구 확보 정책으로 워케이션사업, 세컨하우스사업, 고향사랑기부자 연계사업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인구 정책은, 영월군의 도시적 가능성을 점검하며 유연하게 접근해야 함.

<표Ⅲ-4> 영월군 행정구역별 인구, 평균연령, 고령화 비율(2025.8 기준)

구 분	총 인구		평균연령(세)	고령자 비율	
	인구수(명)	영월군 내비율(%)		고령인구(명)	구성비(%)
영월군	36,334	100.0	54.8	13,569	37.3
영월읍	19,560	53.8	49.9	5,550	28.4
상동읍	1,001	2.8	60.8	477	47.7
산솔면	1,379	3.8	61.7	677	49.1
김삿갓면	1,776	4.9	59.8	793	44.7
북면	1,985	5.5	60.5	950	47.9
남면	2,117	5.8	61.0	1,034	48.8
한반도면	1,136	3.1	58.3	496	43.7
쌍용출장소	1,493	4.1	60.6	732	49.0
주천면	3,778	10.4	60.2	1,823	48.3
무릉도원면	2,109	5.8	61.4	1,037	49.2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접속 2025.9.17.), 재구성

- 영월군은 동서로 넓게 분포된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영월읍보다는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타 도시와의 왕래가 잦은 지역임.
- 그럼에도 영월읍은 등록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각종 도시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권역임.
- 또한, 영월읍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한 지역으로 문화의 역할이 현격히 나뉨.

<표Ⅲ-5> 영월군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의 1차적 역량 배치

구분	역할	방향
영월읍	문화생산과 문화인력 플랫폼	영월군의 브랜드 발신지 / 문화자산 연결 허브
영월읍 외 지역	문화돌봄과 문화인력 활동지역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2.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1)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목적

- 영월군의 인구·관계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시 전략에 부합하는 문화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
-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문화감수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며, 영월군의 관광 매력과 도시활력을 높이는 것에 기여해야 함.
- 프로그램의 축적된 성과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 프로그램 개발 과정

- 영월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은 시범워크숍 진행 후 마을 프로그램(마을 워크숍)으로 확장하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함.



(그림Ⅲ-4)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과 마을워크숍 연계과정

- 시범워크숍은 영월군의 오피니언 리더라 할 수 있는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영월군의 문화활동가, 협력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섭외하여 진행함.
- 시범워크숍에 이어 이루어지는 마을워크숍은 기획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임.

■ 프로그램 개발 결과

- 영월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은 확대와 촉진 -> 기본강의 -> 몸짓활동 -> 자기 객관화 -> 관계 객관화 -> 다양성 상징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주제별로 2~3개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대상, 상황, 경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음.
- 또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라 120분 코스에서 300분 코스까지 축소 또는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그림III-5)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2) 시범 프로그램 운영 경과

■ 1차 시범 워크숍

- 행사명: 영월군민 문화다양성 감각 증진을 위한 시범 워크숍

-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13:00~18:00
- 장 소 : 강원도 영월군 역전충전소
- 대 상 :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및 핵심참여자 14명
- 특 징 :
 - 영월문화도시 관계자 및 핵심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
 - 유형별 프로그램을 모두 배치, 300분 과정으로 설계
- 세부 내용

키워드	주제	프로그램 주요 활동	소요시간(분)
발견	환대와 인사	- 참여자 소개와 인사말	30
	내가 서 있는 자리	- 나의 의식과 인식은 어디에 있나? · 참여자 당사자성 기반의 호명 활동 · 자기 영역의 표현	30
이해	강의	- 영월에서 문화다양성은 왜 필요한가? · 개인영역의 문화다양성 제기 · 자기애와 타인의 다양성 인식 활동	50
	휴식		20
강화	내가 서있는 자리	- 나의 의식과 인식은 어디에 있나? · 자기애와 타인의 다양성 충돌 인지 활동	30
강화	더불어 숲	-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상상할까? · 다양성이 아닌 범외의 영역 이해	30
	휴식		20
확산	연결되는 몸	- 생각을 넘어 몸짓으로 연결되는 문화	60
확산	마주 이야기	- 소감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 이야기하기	30
			300



(그림Ⅲ-6) 1차 시범워크숍 모습

■ 2차 시범 워크숍

- 일 시 : 2025년 11월 13일(목) 13:00~15:00
- 장 소 : 강원도 영월군 역전충전소
- 대 상 :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공무원(8명), 영월문화재단 담당자(4명) 등 12명
- 특 징 :
 - 영월군 문화관 공무원 및 문화도시센터 실무자 대상 진행
 - 1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정비 후 300분에서 120분 과정으로 개편
- 세부 내용

키워드	주제	프로그램 주요 활동	소요시간(분)
발견	환대와 인사	- 참여자 소개와 인사말	15
	내가 서 있는 자리	- 나의 의식과 인식은 어디에 있나? · 자기애와 타인의 다양성 충돌 인지 활동	25
이해	강의	- 영월에서 문화다양성은 왜 필요한가? · 개인영역의 문화다양성 제기 · 자기애와 타인의 다양성 인식 활동	50
강화	더불어 숲	-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상상할까?	15
확산	이야기 나누기	- 소감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 이야기하기	15
			120



(그림Ⅲ-7) 2차 시범워크숍 모습

■ 시범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 시범 워크숍에서도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시범 단계의 제한적 참여에 따라 정확성보다는 향후 결과도출의 방향성을 감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가장 많은 참여자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화도시 사업의 중요성 인식’을 성과로 인지했는데, 이는 개념의 기본 이해와 1차 적인 환경에 관한 것으로 향후 진행 시 난이도와 접근성에 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Ⅲ-6> 시범 워크숍 참여자 만족도(5점 기준)

구분	전반적 만족도	문화다양성 증진 기여	프로그램 만족도	회차 평균
1차(응답수 14)	4.5	4.6	4.7	4.6
2차(응답수 11)	4.7	4.8	4.7	4.7
유형 평균	4.6	4.7	4.7	-

<표Ⅲ-7> 시범 워크숍 참여자 성과 인지(복수응답)

구분	문화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문화도시 사업의 중요성 인식	타인에 대한 관점 변화 계기	영월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자기 발견 기회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시각
1차(응답수 14)	8	6	2	1	1	4
2차(응답수 11)	11	9	2	3	2	1
계	16	15	4	4	3	5

■ 프로그램 개발의 특징

① 영월군민의 정서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

- 자연, 생태 등 영월군민이 일상에서 흔히 보는 생태적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기획자가 연계 언어를 사용함

②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모듈 방식

- 소요 시간 (2시간 ~ 5시간 가능)과 대상 (어린이 ~ 노인 가능), 장소 (노인정 ~ 문화공간 가능) 내용 (강의 ~ 몸짓 가능) 등을 끼어 맞추듯이 구성 가능

③ 영월 기획자와 협력하여 지역화 가능

- 시범사업에 참여한 영월문화도시센터 참여 기획자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마을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문화인력의 참여와 일거리에 기여

④ 영월 기획자와 협력하여 지역화 가능

- 영월군 노인 돌봄사업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노인 문화워크숍으로 활용 가능한 설계로 다목적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

3. 문화다양성 지표체계와 인식조사

1) 문화다양성 지표 설계의 방향

■ 영월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표와 인식조사로서의 충실성

- 모든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락하기 마련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는 쇠락에 대응하는 도시 혁신으로 이에 대응함.
- 영월군의 관계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시 전략에 따라, 영월군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과정을 설계함.
- 영월군의 지속 가능한 도시전략에 있어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진과 자기 표현의 활성화가 곧 도시의 활력과 개방성을 증진한다는 관점에 기초함.

■ 조사 대상의 확장성

-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는 크게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나 관련 사업의 평가를 위해 개발함.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를 지수화한다는 목적에 따라 ‘영월 군민뿐 아니라, 영월군 관계 인구의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을 대상 영역으로 설정함.
- 영월군은 거주자 외 접경지역과의 생활권 공유, 외국인, 관광객 등의 방문자가 혼합된 지역이므로 가장 범위가 넓은 관계 인구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함.
- 관계인구는 14세 이상이면서 한국어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 중 영월군에 정기적·일시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구를 포괄함.

<표Ⅲ-8>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대상영역

지표영역	세부 대상	내용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대상	영월군민	- 법적인 의미에서 영월군에 주소지를 가진 주민 - 영월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거주, 일하는 주민 포함
	관계 인구	- 영월군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14세 이상이면서 한국어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
	시범워크숍 참여자	- 영월문화도시센터, 영월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자 -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 선행연구와 일관적 연결성

- 문체부 실태조사의 조사영역을 반영하여 항목을 구성하고, 각 항목은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검토하여 영월군에 맞게 재구성함.

- 즉, 대국민 인식조사인 문체부의 「20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연결성과 선행연구로 누적된 항목들과의 대응을 고려하여, 개인 영역의 ①인지도 ②수용도 ③경험도와 환경 영역의 수용도를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설계함.
- 또한, 공통 영역으로 제약요인을 구성함으로써 문제점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함.
- 이 지표는 국가 단위 조사나 광역 단위 조사와 달리, 기초 지자체 단위의 인식과 의식 조사이므로, 주민들의 인식, 이해,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목적에 부합하고자 함.

<표Ⅲ-9>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있는 조사 영역

구분	문체부	영월군	선행연구 대응	
조사 영역	가치 인식	개인	서울시 개인적 차원, 인천시 인식지표 등	
	다양성 경험			인지도
	다양성 감수성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준평가	경험도		
	제약요인	수용도		
		환경	수용도	서울시 사회적 차원, 인천시 여건지표 등
		공통	제약요인	

2)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와 인식조사

■ 지표 설계 방향에 기초한 지표 틀 도출

- 위에서 구성한 조사영역을 토대로, 영월형 문화다양성 지표는 조사항목별로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의식 혹은 인식을 지수화한다는 것에 충실하게 구성함.
- 항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혹은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으며,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역시 염두에 둬.
- 시민을 소수성의 수용자인 동시에 당사자로 설정한 선행 연구¹¹⁾ 내용을 응용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소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 ‘자아인지’ 항목은 자기 주관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활용 가능하게 설계함.
- 이를 기본 틀로 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영월형 문화다양성 지표를 분별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반복함.

1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서울연구원, 2020.

<표Ⅲ-10>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조사 내용

구분	항목	조사 내용	
개인	인지도	- 문화다양성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어휘와 의미 인지
		-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 정도	- 개인과 지역에서의 중요성
		- 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지도	- 문화다양성과 소수성 관계
	수용도	- 다양성 대상에 대한 수용도	- 이웃/친구/동료로서의 수용
		- 다양성 대상에 대한 존중도	- 유형별 소수성에 대한 존중
	경험도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참여 - 차별적 경험	-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여부 - 차별적 경험 여부와 사례
제약요인	- 개인적 제약요인	-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여부	
자아인지*	- 당사자성	- '나'의 소수성 파악	
환경	수용도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존중도	지역에서의 경험 기회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제약요인	- 영월군의 제약요인	- 증진 정책 수립 방향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소수성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는 선행 연구의 구분을 준용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 소수성을 설정함.
- 국적, 장애, 성별 정체성 등을 우선 분류하고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소수성은 문화다양성의 인식 범주를 파악하고 응답자가 스스로의 소수성을 자각하는 매개로 활용되는 요소임.

<표Ⅲ-11>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소수성

구분	내용	의미	비고
국적	- 다문화 이주민	- 근로, 결혼, 난민 등 외국 국적(이었던) 당사자	- 문화다양성 지표 선행 연구 - 영월군 사회조사 - FGI 결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 가족	- 다문화 이주민의 가족 구성원	
장애	- 장애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역	- *국내 이주자	- 국내유학생, 농촌유학생, 전근, 귀향, 귀농귀촌 등으로 이주한 한국 국적의 군내 이주자	
	- *타 읍면리	-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고 느끼는 군내 타지역	
정체성	- 성소수자	- 동성애자, 무성애자 등	
	- 문화·예술 취향	- 문화적, 예술적 취향이나 취미	
	- 종교·정치적 견해	- 다른 종교나 정치적 견해	
위계	- 학벌 차이	- 학위의 정도나 출신학교의 차이	
	- 세대 차이	-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집단)	
	- 직업·경제적 차이	- 주변보다 소득이 높거나 낮은 사람(집단)	
기타	- *방문객	- 관광, 출장 등 1개월 미만 단기 체류 관계인구	

*영월군 특성에 따른 특화 항목

■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응답 방식

- 각 조사항목의 응답은 특성에 따라 ①예/아니오 이분형 답변 ②5점 척도의 답변 ③임의 폐쇄형 답변 ④개방형 답변을 병행해서 구성함.
- 이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분석 과정에서 5점 평균을 기준으로 지수화함.

<표Ⅲ-12>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응답방식

구분		조사내용	응답 방식
개인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어휘와 의미 인지	- 이분형, 폐쇄형 혼합
		- 개인과 지역에서의 중요성	- 5점 척도
		- 문화다양성과 소수성 관계	- 5점 척도, 폐쇄형 혼합
	수용도	- 이웃/친구/동료로서의 수용	- 폐쇄형에 따른 이분형
		- 유형별 소수성에 대한 존중	- 폐쇄형에 따른 5점 척도
	경험도	-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여부	- 이분형
제약요인	- 차별적 경험 여부와 사례	- 이분형, 개방형 혼합	
환경	제약요인	-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여부	- 폐쇄형, 개방형 혼합
	수용도	- 지역에서의 경험 기회	- 이분형, 폐쇄형 혼합
	제약요인	- 증진 정책 수립 방향	- 폐쇄형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조사 항목화

- 조사영역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크게 개인과 환경이라는 2개 영역을 설정한 뒤, 다시 7개의 세부 영역을 구성함.
- 개인 영역은 문화다양성 개념에 관한 인지도, 소수성에 대한 수용도,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도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제약요인을 추가로 구성함.
- 환경 영역은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일하나, 개인이 인지하는 영월군 전반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영역임.
- 환경에 관한 인식은 수용도와 제약요인으로 한정함.
- 영역별로 조사항목을 추출하는데, 각 조사항목은 영월군의 응답 대상자, 조사원, 조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수정될 수 있음.

<표Ⅲ-13>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및 인식조사

영역	세부영역	내용	조사문항(안)	응답 방식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	대상	영월군 관계인구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자,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					
	소수성	다문화 이주민	다문화 가족	장애인	국내 이주자	타 읍면리	성소수자
		문화·예술 취향	종교·정치적 견해	학벌 차이	세대 차이	직업·경제적 차이	방문객
	개인 인식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알고 있거나 들어보셨습니까?		- 이분형	
				내가 아는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유네스코 기준 이해도	
				아래의 사람이나 집단은 문화다양성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폐쇄형 혼합	
		수용도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	'나'와 '영월군'에 문화다양성은 얼마나 중요한 편입니까?		- 5점 척도	
				다양성 대상 존중도		- 아래의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을 존중하는 편입니까?	- 5점 척도, 폐쇄형 혼합
				다양성 대상 수용도		- 아래의 사람이나 집단을 이웃/친구/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폐쇄형, 이분형 혼합
		경험도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거나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분형	
				차별적 경험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차별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분형
					내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차별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 의견 수렴
		기타	제약요인	나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폐쇄형, 의견수렴 혼합	
	자아인지		다음 중 내가 속해있거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 폐쇄형, 프로그램화		
환경 인식	수용도	문화다양성 존중도	영월군에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거나 도시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충분합니까?		5점 척도		
		문화다양성 구현도					
	제약요인	제약요인	영월군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폐쇄형, 의견수렴 혼합		

* 각 조사 문항은 실제 응답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표현과 응답 방식을 개선 및 변용할 수 있으나, 세부 영역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결과가 중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함.

영월군민 문화다양성
영월군민 문화다양성

IV

인식 및 의식

조사 결과

IV. 영월군민 문화다양성 인식 및 의식 조사 결과

1.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실시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영월군의 도시 활력과 개방성 강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방향 도출
- 영월군 특화 문화다양성 지표를 활용한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측정
- 지수화된 문화다양성 감수성 토대의 문화다양성 정책설계 방향 제시

■ 조사 기간

- 11월 20일~11월 28일 (약 9일)

■ 조사 범위

- 공간 범위: 강원도 영월군 일대
- 내용 범위: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영역

■ 대상

- 영월군민 및 관계인구 14세 이상 370명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 협력 조사원: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인 영월군민 8명
 - 조사원 사전 워크숍: 11월 19일 14시~16시 (약 2시간)

■ 기대효과

- 영월군민의 문화다양성 감수 역량 증진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활성화
- 영월문화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 역량 강화와 간접 일자리 창출

■ 설문조사 설계

- 설문조사지는 지표와 거의 유사하나, 조사원 대상 사전 워크숍을 통해 부분 수정함.
- 소수성은 유형별 유사성과 실제 접촉 가능성을 고려해 12개에서 8개로 간추림.
- 인지도는 개념의 인지와 함께 유형별 소수성에 관한 인식을 별도로 조사함.
- 수용도는 개인에선 존중도와 수용도를, 환경에선 존중도와 구현도를 병합함.
- 제약요인은 정책이나 사업 등의 설계 시 근거 확보에 초점을 두어 설계함.

<표IV-1>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영역		내용	조사문항(안)	응답 방식	
규격		인구통계 외 15문항 이내			
대상		영월군 관계인구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자, 문화도시 핵심 참여자			
소수성		다문화 이주민·가족	국내 이주자	장애인	성소수자
		취미나 정치 성향 차이	학벌/세대/재산 차이	관광객 등 방문자	-
개인 인식	인지도	개념 및 소수성 인식	-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 이분형	
			- 알고 계신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유네스코 기준 이해정도	
			-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문화다양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제시) 차별받지 않을 의식과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폐쇄형 혼합	
	수용도	가치 동의	-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나"와 "영월군"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존중도	- 귀하는 자신이 아래와 같은 사람의 배경이나 사정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폐쇄형 혼합	
	경험도	수용도	-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쇄형, 이분형 혼합	
		증진 경험	-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배우거나 이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이분형	
	제약요인	차별 경험	-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차별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이분형, 의견 수렴 혼합	
			제약요인	- 귀하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폐쇄형, 의견수렴 혼합
	환경 인식	수용도	존중도	- 귀하는 영월군에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을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구현도					
제약요인		제약요인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폐쇄형, 의견수렴 혼합	

2) 조사 운영

■ 사전 워크숍 운영

- 일 시 : 11월 19일(수) 14:00~16:00
- 장 소 : 영월문화도시 센터 회의실
- 대 상 : 문화다양성 증진 시범 워크숍 참여자 중 희망자 8명
- 진행내용

구 분	내용
방식	- 대면 강의와 워크숍 - 조사원 실습지 1부와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지 1부 별도 준비
지표 안내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이해 - 문화다양성 지표의 이해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개발 과정과 특징
조사 방법	- 인식조사 과정 공유
조사 실습	- 조사자의 소수성 인지 - 조사 여건 공유와 응답자 접근법 - 인식조사지 사전 응답



(그림IV-1) 설문조사 사전 워크숍 모습

■ 본 조사 실시

- 본 조사는 사전 워크숍에 참여한 8인의 조사원이 영월군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조사를 수행함.

<표IV-2>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개요

구 분	내용
조사 기간	- 11월 20일(목)~11월28일(목)(약 9일 간)
조사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영월군민 조사원 8명 진행 -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영월군민과 14세 이상 관계인구
조사 내용	- 영월군민 대상의 문화다양성 인지도와 수용도, 경험, 제약요인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 과정	① 문화다양성 지표 및 인식조사지 초안 개발 ② 인식조사 사전워크숍 시행 ③ 인식조사 진행 ④ 조사결과 지수 추출 및 분석 ⑤ 최종 결과 환류 및 정책 제안 근거 활용
조사 결과	- 총 370명 응답 (현장조사 278건, 온라인 92건)

■ 결과분석 방법

- 무응답은 집계 결과 각 문항별로 1% 미만으로, 5점 척도의 경우엔 중간값 3점을, 폐쇄형의 경우 '기타' 응답 건으로 임의 적용함.
- 모든 응답 결과는 각 응답 별 비율(%)을 표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5점 척도의 경우 ①세부 비율과 ②5점 평균 환산, ③3단계 구간 비율을 병행하여 결과를 표기함.
- 5점 척도 질문의 경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 응답으로 보며, 응답별 결과를 ①5점 평균과 ②구간별 비율로 표기할 수 있음.

<표IV-3> 5점 척도 문항의 결과도출 방식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5점	4점	3점	2점	1점
구간 비율(3단계)	긍정		부정	보통	

- 수용도의 경우 소수성 유형에 따른 이분형(예/아니오)으로 집계했으며, 예=5점, 아니오=1점을 부여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함.

$$\text{평균점수} = \frac{\sum(\text{응답수} \times \text{부여점수})}{\text{전체 응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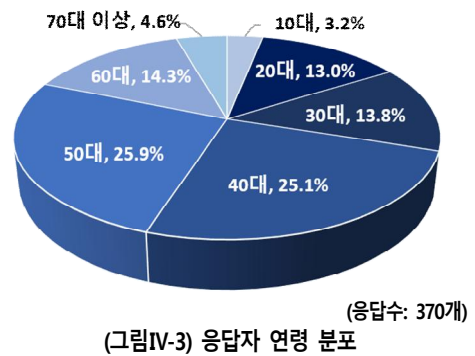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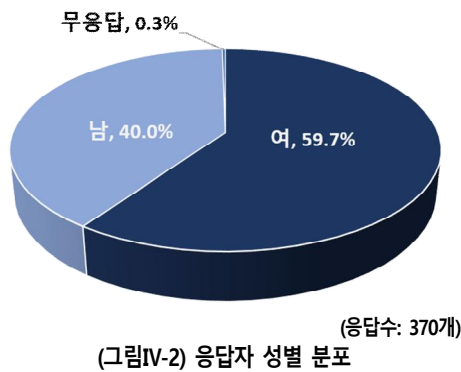
*이분형의 5점 평균 산출 시 '예'=5점, '아니오'=1점 부여

2.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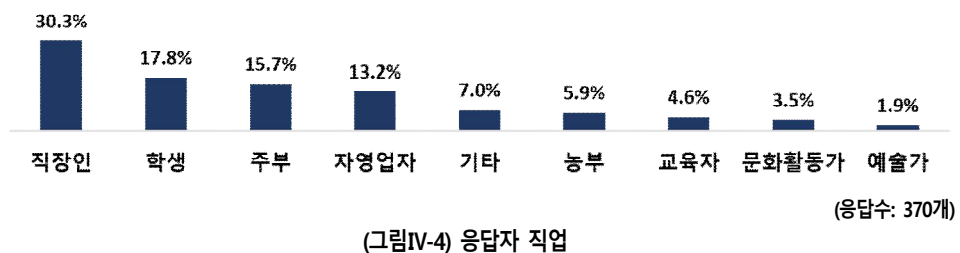
■ 성별 및 연령 분포

- 총 370명인 응답자의 성비는 여성이 59.7%(221명), 남성이 40.0%(148명)로 나타났으며, 1건의 '무응답'이 있음.
- 연령대는 50대가 25.9%로 가장 많고, 이후 40대 25.1%, 60대 14.3%, 30대 13.8%, 20대 13.0% 순으로 나타나, 영월군의 인구 구성에 비해 10대, 20대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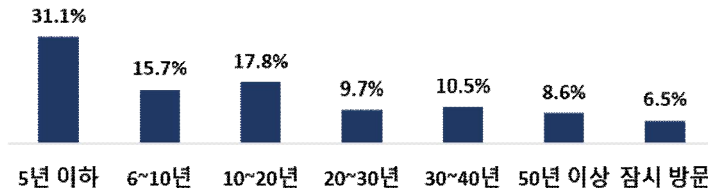
■ 직업

- 응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30.3%(11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생 17.8%, 주부 15.7%, 자영업자 13.2% 순으로 나타남.
- 이후 기타 7.0%, 농부 5.9%, 교육자 4.6%, 문화활동가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가 1.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영월 정주 기간

- 응답자의 영월 정주 기간은 5년 이하가 31.1%로 비중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 10~20년 17.8%, 6~10년 15.7%, 30~40년 10.5%, 20~30년 9.7%, 50년 이상 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월에 잠시 방문한 응답자도 6.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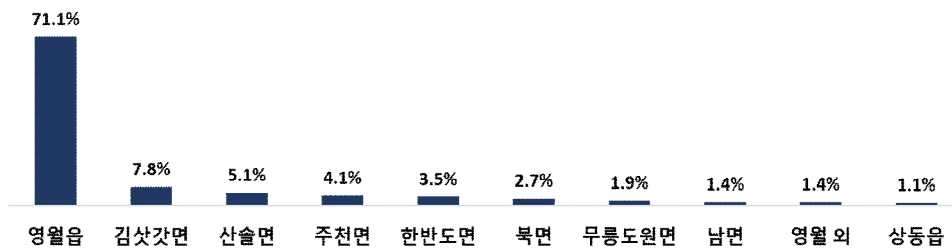


(응답수: 370개)

(그림IV-5) 응답자 영월정주기간

■ 주요 생활지역

- 응답자의 주요 생활지역은 영월읍이 71.1%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 영월군 주민 분포에 비해 영월읍의 비중이 매우 높게 표집됨.
- 다음으로 김삿갓면 7.8%, 산솔면 5.1%, 주천면 4.1%, 한반도면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면 2.7%, 무릉도원면 1.9%, 남면과 영월 외 지역은 각각 1.4%, 상동읍은 1.1%로 나타남.



(응답수: 370개)

(그림IV-6) 응답자 주요생활지역

■ 설문 응답자의 특성

- 설문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영월읍, 젊은층, 직장인 중심으로 표집 되어 영월군 일반의 의식 및 인식조사로 편중된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영월군 인구의 53.8%가 영월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광활한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설문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설문의 결과는 영월군 일반보다 영월읍 중심의 다소 젊은 세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전제로 봐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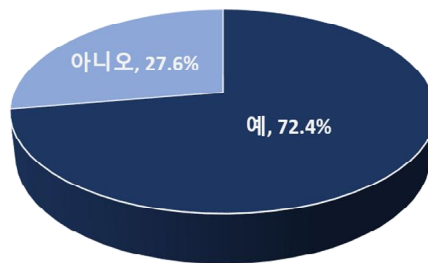
<표IV-4> 응답자 특성 종합

구분		응답수(건)	비율(%)
전체		각 항 148명	각 항 100.0
성별	여자	221	59.7
	남자	148	40.0
	무응답	1	0.3
연령	10대	12	3.2
	20대	48	13.0
	30대	51	13.8
	40대	93	25.1
	50대	96	25.9
	60대	53	14.3
	70대 이상	17	4.6
영월 정주기간	5년 이하	115	31.1
	6~10년	58	15.7
	10~20년	66	17.8
	20~30년	36	9.7
	30~40년	39	10.5
	50년 이상	32	8.6
	잠시 방문(관광, 출장 등)	24	6.5
주요 생활지역	영월읍	263	71.1
	김삿갓면	29	7.8
	산솔면	19	5.1
	주천면	15	4.1
	한반도면	13	3.5
	북면	10	2.7
	무릉도원면	7	1.9
	남면	5	1.4
	영월 외	5	1.4
	상동읍	4	1.1
직업	직장인	112	30.3
	학생	66	17.8
	주부	58	15.7
	자영업자	49	13.2
	기타	26	7.0
	농부	22	5.9
	교육자	17	4.6
	문화활동가	13	3.5
	예술가	7	1.9
	행정가	0	0.0

2) 문화다양성 인지도

■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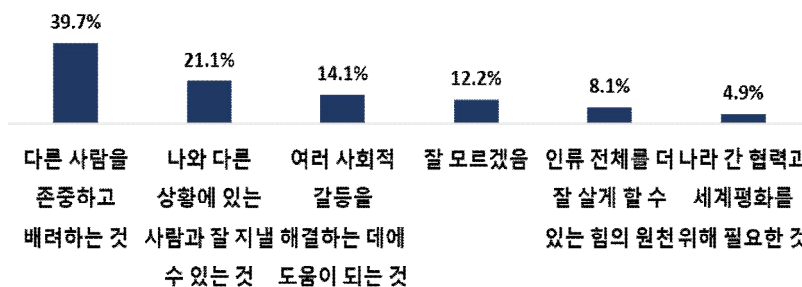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을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예/아니오’로 수집했는데, 전체의 72.4%(268명)가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일단 높은 인지도를 보여줌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정도와 수용성 여부 확인이 필요함.



(응답수: 370개)

(그림IV-7)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항목을 물었을 때, 비교적 다양한 대답에 응답함.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21.1%,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14.1% 순으로 나타남.
- 이어 ‘잘 모르겠음’ 12.2%, ‘인류 전체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 8.1%, ‘나라 간 협력과 세계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 4.9% 순으로 나타났는데,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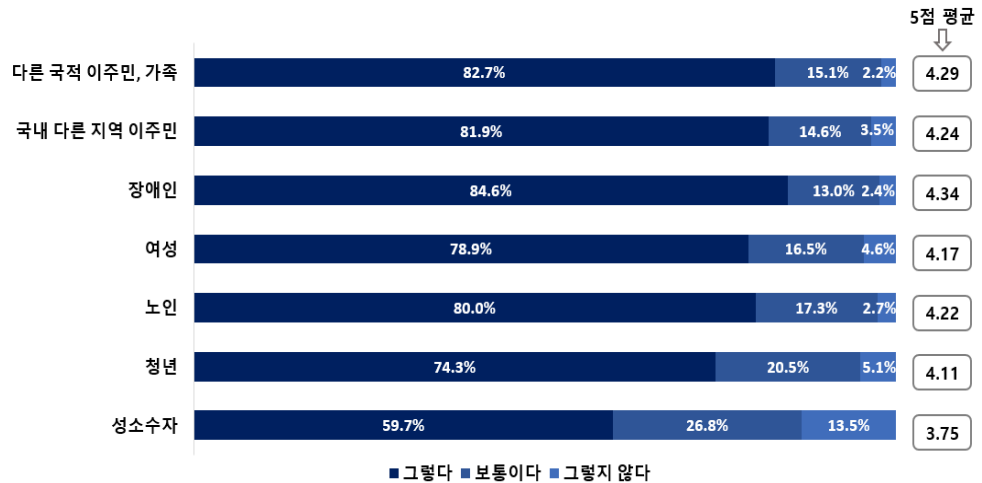


(응답수: 370개)

(그림IV-8) 귀하가 생각했을 때,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다양성 대상 인식과 차별에 대한 태도

- 막연한 개념으로부터 구체성을 도출하고자, 세부인지에서는 소수성을 담고 있는 유형의 사람이 문화다양성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에 관한 질문함.
- 또한, 차별받지 않을 의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관해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로 묻고, 그 결과를 3단계(그렇다-보통-아니다)로 재구성함.



(응답수: 370개)

(그림IV-9)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문화다양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받지 않을 의식과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장애인’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국적 이주민과 그의 가족’ 82.7%와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81.9%가 뒤를 이음.
- 이후 ‘노인’ 80.0%, ‘여성’ 78.9%, ‘청년’ 74.3% 등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제시된 유형에 대해 문화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함.
- 반면 ‘성소수자’는 59.7%로 낮게 나타났으며, 5점 평균 산출 결과도 모든 항목이 4점대인 것에 비해 성소수자만 3점대로 나타남.

<표IV-5> 문화다양성과 소수성의 관련 정도와 차별 방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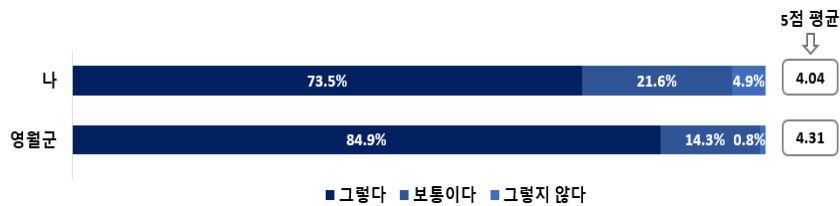
구분	5점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4.29	48.9	33.8	15.1	2.2	0.0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4.24	46.2	35.7	14.6	3.2	0.3
장애인	4.34	51.4	33.2	13.0	2.4	0.0
여성	4.17	43.2	35.7	16.5	3.8	0.8
노인	4.22	44.9	35.1	17.3	2.4	0.3
청년	4.11	42.7	31.6	20.5	4.6	0.5
성소수자	3.75	33.0	26.8	26.8	8.9	4.6

*단위: 점, %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며, 문화다양성 감수성에 의한 인식이든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인식이든 비교적 차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드러냄.
- 흥미로운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있다는 점과 ‘국내 다른 지역 이주자’보다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이 높게 나온 점은 흥미로운 내용임
- 또한, 대부분의 소수성 중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음.

■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

-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에 관해서는, ‘나에게 중요하다’가 73.5%, ‘영월군에 중요하다’가 84.9%로, 매우 높은 수치라 볼 수 있음.



(응답수: 370개)

(그림IV-10)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나”와 “영월군”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나, 문화다양성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응답 73.5%에 비해 영월군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84.9%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영월군민의 영월군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
- 이는 영월군민이 ①영월군의 문화다양성은 중요하지만 부족하며, ②영월군의 미래를 위해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문화다양성에 관해서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보다 영월군의 문화와 환경, 여건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표IV-6> 문화다양성 가치에 관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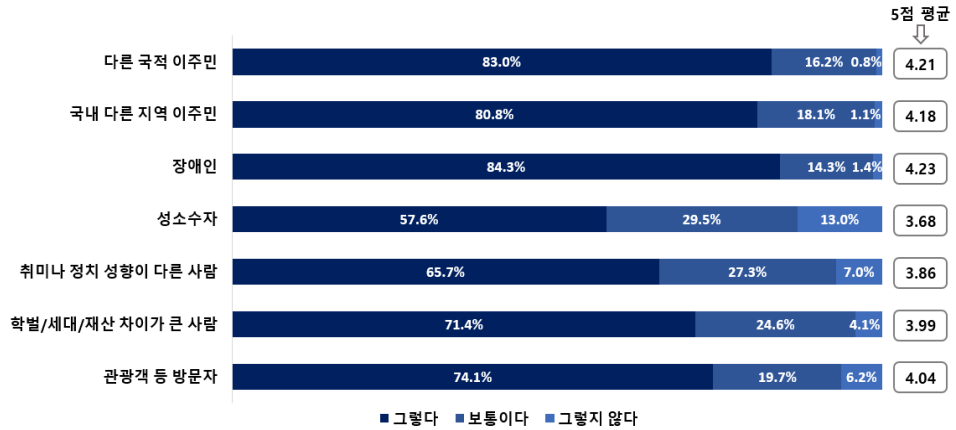
구분	5점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나한테 중요하다	4.04	36.2	37.3	21.6	4.3	0.5
영월군에 중요하다	4.31	47.0	37.8	14.3	0.8	0.0

*단위: 점, %

3) 문화다양성 수용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존중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지표에서의 소수성)을 존중하는지에 관한 응답을 3단계 구성했을 때, '장애인'에 관한 긍정 응답이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국적 이주민' 83.0%,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80.8%가 그 뒤를 이음.
-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긍정 응답이 80% 이하로 나타났는데, '관광객 등 방문자' 74.1%,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71.4%, '취미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65.7% 순이며, '성소수자'에 관한 긍정 응답은 57.6%로 가장 낮음.



(응답수: 370개)

(그림IV-11) 귀하는 자신이 아래와 같은 사람의 배경이나 사정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는 앞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과의 관련성 및 소수성의 관련 정도와 차별 방지의 필요성과 정확히 일치함.
- 즉, 응답자의 인식과 태도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 캠페인, 주민교육 등 가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표IV-7> 소수성 집단에 대한 존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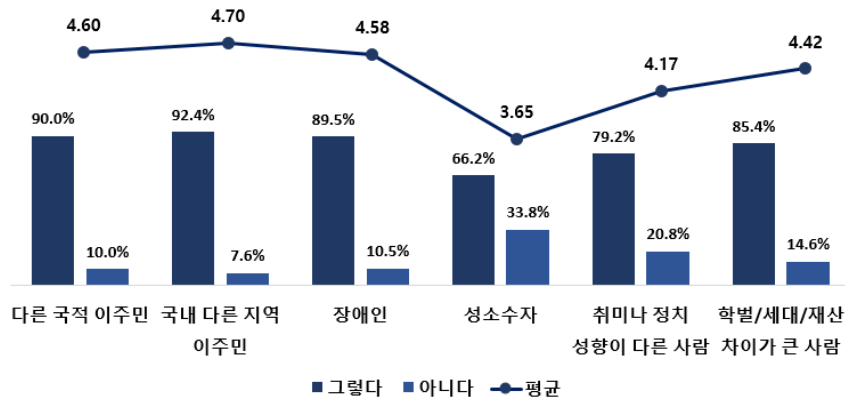
구분	5점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4.21	38.9	44.1	16.2	0.8	0.0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4.18	38.6	42.2	18.1	0.8	0.3
장애인	4.23	40.0	44.3	14.3	1.4	0.0
성소수자	3.68	27.3	30.3	29.5	8.6	4.3
취미·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3.86	28.4	30.3	29.5	8.6	4.3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3.99	32.2	37.3	27.3	5.9	1.1
관광객 등 방문자	4.04	37.0	37.0	19.7	5.7	0.5

*단위: %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① 소수자를 이웃으로 수용하는 정도

- 지표의 소수성에 대하여 ‘옆집에 살아도 되는 정도의 관계’, ‘친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일과 활동을 같이 하는 관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을 우선 분석 후 전체 결과를 5점 평균으로 산출함.
- ‘옆집에 살아도 된다’(이웃)는 문항의 긍정 응답은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92.4%,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포함)’ 90%, ‘장애인’ 89.5%,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85.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취미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 79.2%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5점 평균으로 환산 시 위 모든 집단에 대한 수용도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성소수자’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66.2%로 수용도는 3.65점으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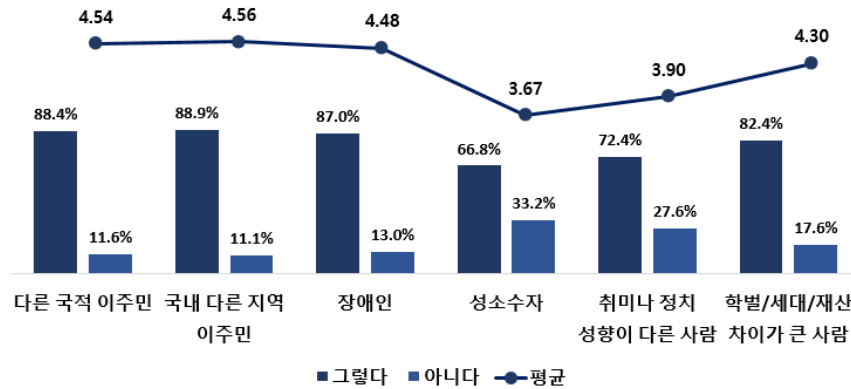


(응답수: 370개)

(그림IV-12)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옆집에 살아도 된다)

② 소수자를 친구로 수용하는 정도

- ‘친구가 될 수 있다’(친구)는 문항에는 위의 이웃 수용도 보다 적게는 2~5% 정도 낮게 나와 약간의 거리감을 드러냄.
- 친구 수용도를 볼 때, 긍정 응답이 80%가 넘는 집단은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88.9%, ‘다른 국적 이주민’ 88.4%, ‘장애인’ 87.0%,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82.4%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취미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에 관한 긍정 응답은 72.4%로 상대적으로 낮고,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 응답은 가장 낮은 66.8%로 나타남.
- 이는 이웃 수용도와 순서와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된 인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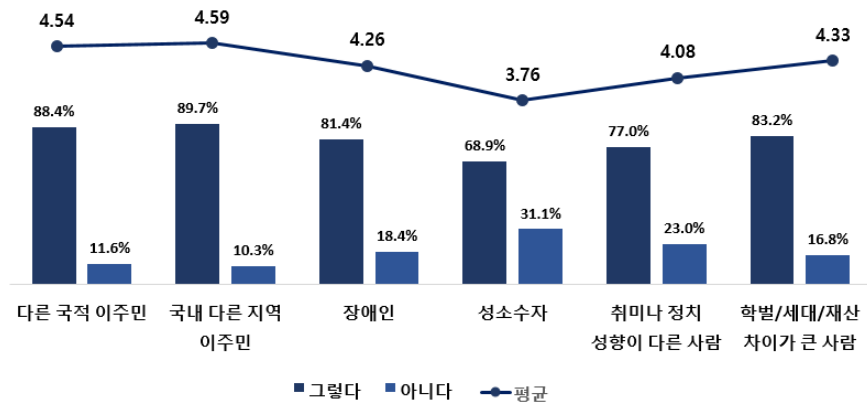


(응답수: 370개)

(그림IV-13)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친구가 될 수 있다)

③ 소수자를 동료로 수용하는 정도

- 이웃 수용도나 친구 수용도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료 수용도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위의 두 응답과 궤를 같이함.
- ‘일이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동료)에 대한 긍정 응답은,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89.7%, ‘다른 국적 이주민’ 88.4%,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83.2%, ‘장애인’ 81.4% 순으로 이전 응답과 다르지 않음.
- 또한, ‘취미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77.0%, ‘성소수자’ 68.9%에 대한 긍정 응답은 역시 앞의 응답과 다르지 않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그러나 다른 질문에 비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반면, 성소수자는 낮아진 비율이 앞의 조사보다 작게 나타남.



(응답수: 370개)

(그림IV-14)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웃, 친구는 정서적 관계 측면이 있는 반면, 동료로서의 관계는 기능적 혹은 목적 의식적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응답이 드러남.

<표IV-8>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관한 수용도

구분	옆집에 살아도 된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일/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렇다	5점 평균	그렇다	5점 평균	그렇다	5점 평균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90.0	4.60	88.4	4.54	88.4	4.54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92.4	4.70	88.9	4.56	89.7	4.59
장애인	89.5	4.58	87.0	4.48	81.4	4.26
성소수자	66.2	3.65	66.8	3.67	68.9	3.76
취미·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79.2	4.17	72.4	3.90	77.0	4.08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85.4	4.42	82.4	4.30	83.2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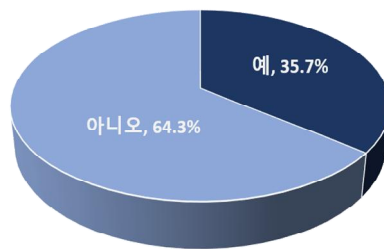
*단위: %, 점

4) 문화다양성 경험도

■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① 문화다양성 학습 경험

- 문화다양성을 배우거나 이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 64.3%, ‘예’ 35.7%로 나타남.
-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상과 이슈 중심으로 간접 경험을 했다는 의미이며, 자신이나 영월군에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체계적인 이해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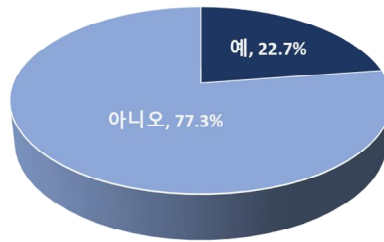


(응답수: 370개)

(그림IV-15)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배우거나 이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② 차별적 상황 경험

-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차별적 상황을 경험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 77.3%, ‘예’ 22.7%로 나타남.
- 이는 “누구나 소수자이자 다수자”라는 사회적 위상의 교차성(정체성의 다층성)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 차별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차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응답수: 370개)

(그림IV-16)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차별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③ 차별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경험 (주관식)

- 차별적 상황의 경험 사례는 주관형 의견수렴 방식이며 선택형 문항이고, 당사자가 아닌 목격 사례도 수용함.
- 응답 수는 총 42건이고, 각 응답은 국적, 지역, 장애, 성별, 세대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적의 차이에 따른 차별 경험이 15건으로 가장 많은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 주요 사례로 나타남.
- 지역은 국내 이주민에 대한 텃세, 지역 편견 등이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음.
- 장애는 2건 모두 목격 사례로,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시선, 언행 관련 경험임.
-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은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성적 발언과 성역할에 관한 강요에 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세대는 1건으로 노인 대상의 행정 절차 장벽에 관한 내용임.
- 기타는 8건으로 정치·종교의 강요나 공무원의 태도 등이 주요 내용임.

<표IV-9> 차별적 경험 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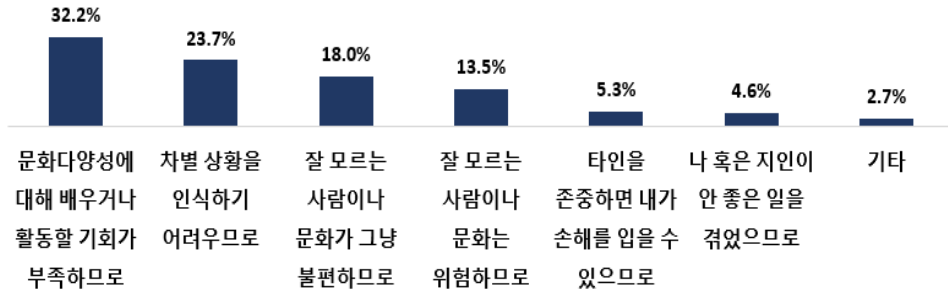
구분	계	국적	지역	장애	성별	세대	기타
건수	42	15	9	2	7	1	8

*단위: 건

■ 문화다양성 증진 제약 요인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문화다양성에 대해 배우거나 활동할 기회가 부족하므로'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차별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23.7%, '잘 모르는 사람이나 문화가 그냥 불편하므로' 18.0%, '잘 모르는 사람이나 문화는 위험하므로' 13.5% 순으로 나타남.

- ‘타인을 존중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5.3%, ‘나 혹은 지인(가족·친구) 등이 안 좋은 일을 겪었으므로’는 4.6%, 기타 2.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복수선택) (응답수: 676개)

(그림IV-17) 귀하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는 설문 응답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경험의 부재로 인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의식이 ‘인상이나 느낌’ 중심으로 형성된 점을 지적하였는데, 설문 응답자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하고 있음.

<표IV-10> 문화다양성 제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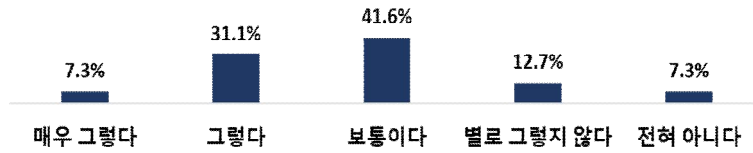
구분	배우거나 활동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차별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잘 모르는 사람이나 문화가 그냥 불편하므로	잘 모르는 사람이나 문화는 위험하므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나 혹은 지인이 안 좋은 일을 겪었으므로	기타
문화다양성 제약 요인	218	160	122	91	36	31	18

*단위: 건

5) 문화다양성 환경

■ 영월에서 문화다양성 경험 기회 충분 정도

-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인식은 지역의 존중도와 구현도를 통합하여 ‘영월군에서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에 관한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수집함.
- 응답 결과로는 ‘보통이다’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 31.1%, ‘매우 그렇다’ 7.3% 순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은 총 38.4%로 나타남.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12.7%, ‘전혀 아니다’ 7.3%로 부정 응답도 20% 수준으로 나타남.



(응답수: 370개)

(그림IV-18) 귀하는 영월군에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을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는 실제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관련 정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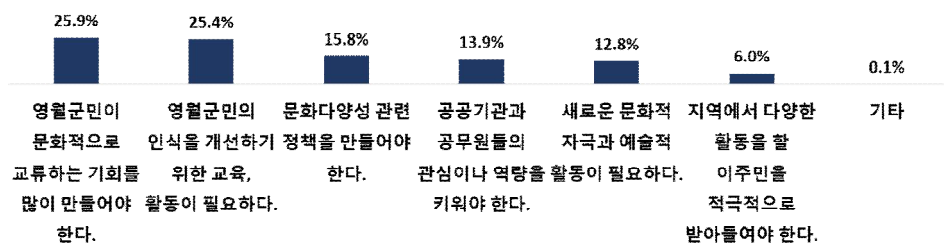
<표IV-11> 영월에서 문화다양성 경험 기회 충분 정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영월에서 문화다양성 경험 기회 충분 정도	27	115	157	47	27

*단위: 건

■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방안

- 문화다양성 환경의 제약 요인을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방안’으로 변용하여 복수 선택으로 응답을 수집함.
- 이에 관한 응답으로 ‘영월군민이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월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가 25.4%로 유사한 수치로 나타남.
- 이어,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5.8%,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3.9%, 그 외 ‘새로운 문화적 자극과 예술적 활동이 필요하다’ 12.8%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6.0%, 기타 의견은 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복수선택) (응답수: 713개)

(그림IV-19)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의 모든 항목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판단할 때,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표IV-> 영월군에서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방안

구분	영월군민이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영월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 필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관심이나 역량을 키워야...	새로운 문화적 자극과 예술적 활동이 필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기타
문화다양성 인식증진 방안	185	181	113	99	91	4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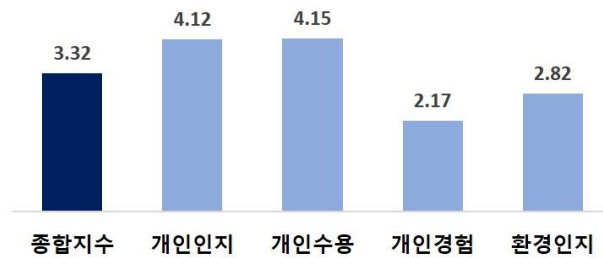
*단위: 건

3. 영월군 2025년 문화다양성 지수 도출과 시사점

1) 영월군 문화다양성 종합 지수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도출

- 조사 결과를 지표 영역에 따라 5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종합 지수는 3.32점이라 할 수 있음.
- 세부 영역별로는, 문화다양성 개인인지지수 4.12점, 개인수용지수는 4.15점, 개인경험지수는 2.17점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환경지수는 2.82점으로, 각 영역별 지수의 평균인 2025년 영월군 문화다양성 종합지수는 3.32점으로 나타남.



(그림IV-20) 영월군 2025년 문화다양성 인식 지수 분석 결과

- 종합지수는 영월군의 연차별 문화다양성 지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유용하며, 각 항목별 세부 지표는 영월군의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영월군의 학교나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지표임.
- 각 세부 영역의 결과는 목표의 설정과 관련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집중적인 추적이 필요함.
- 이에 각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지수를 도출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과 개방성을 점검할 때 본 지표와 지수의 의미가 극대화됨.

<표IV-13> 영월군 2025년 문화다양성 인식 종합 결과

영역	내용	세부내용	5점 평균			
개인 인식	인지도	개념 인지	- 문화다양성을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3.90		
		소수성 인지	소수성과 문화다양성 관계 및 차별 방지 필요성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4.29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4.24	
				장애인	4.34	
				여성	4.17	
				노인	4.22	
				청년	4.11	
				성소수자	3.75	
		가치 동의	- 문화다양성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4.04		
			- 문화다양성은 "영월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4.17		
	개인인지지수			4.12		
	수용도	존중도	문화적 배경 차이 존중 필요성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4.21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4.18	
				장애인	4.23	
				성소수자	3.68	
				취미.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3.86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3.99	
				관광객 등 방문자	4.04	
		수용도	이웃/친구/동료 수용성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4.56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4.62	
장애인				4.44		
성소수자				3.69		
취미.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4.05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4.35		
개인수용지수				4.15		
경험도				경험도	-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의 참여 경험이 있습니까? -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상황이나 목격에 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2.17
	개인경험지수			2.17		
환경 인식	수용도	존중도	- 영월군에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을 경험할 기회가 충분합니까?	2.82		
		구현도				
	환경인식지수			2.82		
종합 지수			3.32			

*단위: 점

2)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에 따른 시사점

■ 인구 특성과 미래세대를 포용하는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연령대는 40~60대 사이가 가장 많고(65.3%) 생활권은 영월읍에 집중되어 있음(71.1%).
- 이는 영월군이 50~70대의 연령 비중이 높고, 거주지가 영월읍에 밀집(53.8%)되어 있는 현황보다 좀 더 연령 집중, 지역 집중이 발생되었지만 비교적 유사하게 표집한 것으로 보임.
- 도리어, 이번 조사는 5년 이하(31.1%) 정주기간, 직장인(30.3%)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영월군의 유입·출 관련 인구가 많이 참여하여 영월군에 관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응답자 특성을 볼때 미래세대이자 예비 중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30대의 비중(26.8%)이 적지 않아 영월군에서 수렴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향후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진행하거나 의식의 증진 전략을 수립할 시, 대상의 균등한 안배보다 인구 특성을 우선 고려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①중장년층의 문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주체성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필요 ②도시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 증진 프로그램으로 관계 인구의 활발한 환류에 대응 ③청년세대의 지역 애착과 개방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의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임.

■ 보수적인 성정체성 인식의 변화 관찰 지속

- 성소수자는 국내외 대다수의 문화다양성 관련 지표에서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소수성이며, 성소수자 집단의 밀집도를 수치화하는 '게이 지수'는 도시의 개방성과 활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함¹²⁾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의 인권 현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무지개 지수'를 활용한 바 있음.
- 무지개 지수는 관련 제도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며, 국제 규격을 기반하고 있어, 활용 시 상위 정책과의 연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이런 사례는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포용성과 정체된 성관념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일례로 문체부 실태조사의 감수성 결과¹³⁾에서도 인종(3.72점), 세대(3.90점), 장애(3.35점) 관련 감수성에 비해 '성소수자의 권리'(3.23

12) 게이 지수(gay index).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Florida, Richard, 2002)에 소개된 지표 중 하나. 첨단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성소수자 집단의 밀집도도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도시의 높은 개방성과 다양성은 창조적 인재를 끌어당기고, 이는 도시의 매력 강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13) 위의 보고서, 35쪽.

점)에 관한 감수성이 눈에 띄게 낮으며, 전통적인 남녀역할(3.34) 감수성은 장애 감수성과 유사하게 나타남.

- 본 조사에서도 인지도와 수용도 모두 성소수자에 관한 지수가 유달리 낮게 나타났으며, 차별적 경험에서 성별 관련 빈도가 16% 정도로 나타났고 성역할 강요에 관한 사례가 수집된 바 있음.

<표IV-14>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비교(국적 지역, 장애, 성소수자)

구분	평균	인지도	존중도	수용도
다른 국적 이주민·가족	4.35	4.29	4.21	4.56
국내 다른 지역 이주민	4.35	4.24	4.18	4.62
장애인	4.34	4.34	4.23	4.44
성소수자	3.71	3.75	3.68	3.69

*5점 평균, 단위: 점

- 성정체성에 관한 감수성은 일종의 간접 지표로, 성정체성 감수성 강화를 통해 도시의 개방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개방성과 매력 강화의 결과로 성정체성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야 함.
- 또한 현재의 영월군은 창의 인력의 적극적인 유입이 아닌 장기 정주자와 중단기 정주자의 관계 완화, 관계 인구의 순환 활성화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욱 적합함.
- 이에, 성정체성에 관한 인지를 확장하는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사고의 유연함과 포괄적인 개방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촉진하면서, 변화의 측정 방식으로 성정체성이나 전통적 성역할에 관한 인식과 감수성의 변화를 지속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여건 강화

-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지도는 4.12점, 의미를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72.4%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음.¹⁴⁾
- 이 결과는 ①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기간에 동시 진행한 문화다양성 마을워크숍에 의한 일시적 학습효과 ②2025년 한국 사회의 긴급한 정치·사회 현상에 의한 사회적 학습효과 ③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이 영월군민에게 인지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함.
- 그럼에도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높고, 그 의미를 일상(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부터 원론(인류 문명의 원천)까지 포괄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 신호임.
- 문화다양성의 가치 동의 정도에서 개인(4.04점)보다 지역(4.17점)이 높게 나타난

14)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 인지 정도는 27.3%로 나타남”, <20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점, 경험도의 낮은 수치(2.17점), 경험의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2.17점)는 인식에 주목하며 다음 단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역 차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인의 의식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함.
- 본 조사에 따르면 문화적 교류 기회와 관련 교육 및 활동 확대, 정책 마련이 주요 방안으로 꼽혔으며, 공공의 관심과 역량 강화가 그 뒤를 이음.

V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V.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1. 영월군의 도시전략의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1) 영월군의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 지속 가능한 도시전략의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필요

- 영월군이 하나의 도시로서 지속가능성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산업기반의 도시나 서비스 기반의 도시로서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영월군은 기존의 한국 사회가 시도한 적이 없는 도시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축소도시임.
- 축소도시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축소할 부분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집중하여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함.

<표V-1> 영월군이 고려해야 할 도시유형

축소도시	내용
인구감소도시	-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용어
쇠퇴도시	-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도심의 활력이 떨어지며 물리적 환경이 노후화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 표현
소멸도시	- 대한민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가임기 여성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도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
스마트 축소 (Smart Decline)	- 인구를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감소하는 인구 규모에 맞춰 도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다이어트)하는 전략적 용어
컴팩트 도시 (Compact City)	- 축소되는 도시 내에서 거점 지역에 서비스를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인 '압축 도시'를 의미하며, 축소도시의 모델로 언급

- 이때 도시는 도시 내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지역 담론으로 구축하는 거버넌스적 경영이 필요함.
- 이때 도시 내 협력을 이끌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도시 경영에 있어 문화다양성 원리는 매우 중요함.

■ 관광, 여가, 휴양, 휴식의 도시로서 문화다양성 전략 필요

- 영월군의 취약한 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은 매우 다양함.
- 따라서 이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영월의 자원을 현대적 감각과 동시대적 미적 수준에 맞게 기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역량을 필요로 함.
- 이는 우선적으로 영월이라는 로컬이 세계를 향해 열려야 함(개방성)을 의미하며, 현대적인 관점과 감각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문화다양성 전략은 매우 중요함.

■ 영월군 오피니언 리더의 인식 전환 필요

-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지역에 뿌리를 둔 공동체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도시가 가진 도시 정체성의 근간임.
- 도시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부적 힘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도시적 개방성을 저해한다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함.
- 따라서, 영월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군정 차원에서의 지역 오피니언 리더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를 위해 상층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인식의 전환은 다양한 소통, 설득, 참여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2) 군정에서의 적극적 도입

■ 정책 기반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월군은 2021년 「영월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확대 및 활성화

- 문화다양성 기반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워크숍 등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결혼 이주여성, 청소년, 노년층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실제적인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필요함.
- 마을 단위의 워크숍 등 생애 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례화 하여 주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정례화

1) 문화다양성 지표 운영체계와 가이드

■ **영월 문화다양성 지표의 특징**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는, 상위 지표 및 타도시에서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 틀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다양성 지표와의 연결성을 지향함.
- 영월군의 일반 현황과 주민 생활에서 도출한 미시적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하여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실태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최적화됨.
- 이에 지표의 조사영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문화다양성 지수 측정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변화에 따른 세부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표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

<표V-2>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과 활용

영월군 도시분석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문화다양성 지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문화환경(통계자료) - 영월군 사회인식(사회조사) - 영월군민 인식(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지표 사례 분석 - 영월군 특화 지표 영역 설정 - 영월형 문화다양성 지표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군 문화다양성 의식 조사 - 영월형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활용**

-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는 영월군의 개방성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다양성 지표는 크게 ①인식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②관련 사업 개발과 평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체의 역할 설정을 통해 활용 효과를 조정할 수 있음.
- 활용 효과는 영월군의 오피니언 리더와 관련 기관 관계자의 주체성 및 협력 정도와 비례 관계로, 기관 관계자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과 평가 주체로의 역할 수행을 병행하며, 주민의 참여 정도와 협력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야 함.

<표V-3>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표의 활용

매개	활용	주체	역할(안)
문화다양성 지표	영월군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	- 영월군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	- 조사 사업 운영, 응답자
		- 영월군민 오피니언 리더	- 조사 수행, 지표 개선, 응답자
	영월형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및 평가	- 영월군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	- 정책 여건 개선, 자체 평가
		- 영월군민 오피니언 리더	- 사업 기획 및 실행, 정책 제안

2) 문화다양성 지표의 향후 보완 방향

■ 지표의 정밀도와 현실성 보완

- 2025년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조사원의 응답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설계함.
- 이에 지표 영역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인식조사의 문항을 간소화하여 진행함.
- 향후 관련 조사 진행 시 정밀도와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지표 영역을 결과가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월군의 인구 특성과 군민의 인식에서 생활권과 정주 목적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현안을 도출한바, 통계의 신뢰도와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지표 운영의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V-4> 문화다양성 지표 주요 보완 방향

구분	현	보완 방향
지표 영역	- 세부영역별로 다른 소수성 적용	- 조사 결과 기반으로 통합 소수성 확정
	- 개인 인식에서 인지도와 존중도 혼용	- 인지도 구체성 강화, 존중도 세분화
	- 자기인지 영역의 워크숍 프로그램 대체	- 자기인지 문항 설계 및 조사지 반영
	- 환경인식에서 존중도와 구현도 통합	- 구현도에서 제도 및 사업 현안 측정
운영 방식	- 외부 연구진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 기 참여자 대상 인터뷰 및 기획단 참여 유도
	- 조사원 워크숍 프로그램 간소화	- 조사원 기획력 강화 프로그램 추가
	- 조사원 여건을 우선 고려한 표본 설정	- 인구 특성을 고려한 표본 배분 우선 진행
	- 응답자 통합 결과 도출	- 응답자 생활권 세대 등 세부 특성별 결과 도출

■ 제도의 보완

- 현재 영월군에는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함.
- 문화다양성 관련 대표적 제도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역과 기초를 포함하여 25개 지역에서 제정함.

- 이에, 영월군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문화다양성 증진 계획이 포함된 영월군 및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장기 비전의 수립과 ②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의식과 문화적 역량은 참여자의 주체성 심화에 따라 효과가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영월문화도시센터는 영월군에서의 문화 활동 참여 양상을 일방성에서 상호관계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바 있음.
- 이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도시 사업 종료 후에도 센터를 자체 운영으로 전환한다면 해당 역량의 소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영월군 사회조사 보고서」, 영월군, 2018~2024.
「2022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영월군, 2022.
「2023 영월군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영월문화관광재단, 2023.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보고서」, 문화도시영월, 2023~2024.
「2035년 영월군 기본계획」, 영월군, 2024.
「영월군 통계연보」, 영월군, 2024.
「2025 주요업무계획」, 영월군, 2025.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4.
- 이동연,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류정아, 「문화다양성지표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류정아,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유영심,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강원연구원, 2018.
장현선,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보고서」, 부산문화재단, 2018.
라도삼,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2018.
백선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서울연구원, 2020.
장현선, 「세종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2022.
최혜자, 「김해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김해문화재단, 2022.
임영식,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4.
Florida, Richard,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
- 영월군청 홈페이지(<https://www.yw.go.kr/>)
영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yw.go.kr/>)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ywcf.or.kr/>)
영월문화도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ywcculturalcity>)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홈페이지(<https://www.elis.go.kr/>)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https://datalab.visitkorea.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https://encykorea.aks.ac.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kawf.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https://jumin.mois.go.kr/>)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부록

부록1

1.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양식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

영월군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디자인자리는 영월문화도시센터의 의뢰로 '영월군 문화다양성 지수 분석과 문화다양성 사업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영월에 사는 분들의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기 위한 조사이며,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니 영월에서의 일상을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 보유기간 : 설문 조사 완료 후 파기
- 수집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책임연구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최혜자
 문의/안내 : ㈜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추일범
 (02-2636-5253/jari2025@gmail.com)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예	①	아니오	②
---	---	-----	---

2. 알고 계신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②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것
③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④	나라 간 협력과 세계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
⑤	인류 전체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
⑥	잘 모르겠음.

3.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문화다양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받지 않을 의식과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다른 국적 이주민이나 가족	⑤	④	③	②	①
우리나라 다른 지역 이주민	⑤	④	③	②	①
장애인	⑤	④	③	②	①
여성	⑤	④	③	②	①
노인	⑤	④	③	②	①
청년	⑤	④	③	②	①
성소수자	⑤	④	③	②	①

4.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나”와 “영월군”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나한테 중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영월군에 중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수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자신이 아래와 같은 사람의 배경이나 사정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다른 국적 이주민	⑤	④	③	②	①
우리나라 다른 지역 이주민	⑤	④	③	②	①
장애인	⑤	④	③	②	①
성소수자	⑤	④	③	②	①
취미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⑤	④	③	②	①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⑤	④	③	②	①
관광객 등 방문자	⑤	④	③	②	①

6.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옆집에 살아도 된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일/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다른 국적 이주민	O ()	X ()	O ()	X ()	O ()	X ()
우리나라 다른 지역 이주민	O ()	X ()	O ()	X ()	O ()	X ()
장애인	O ()	X ()	O ()	X ()	O ()	X ()
성소수자	O ()	X ()	O ()	X ()	O ()	X ()
취미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O ()	X ()	O ()	X ()	O ()	X ()
학벌세대재산 차이가 큰 사람	O ()	X ()	O ()	X ()	O ()	X ()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하는 문화다양성을 배우거나 이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①	아니오	②
---	---	-----	---

8. 귀하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차별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내가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것만)

예	①	아니오	②
직접 작성			

9. 귀하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잘 모르는 사람이나 문화가 그냥 불편하므로
②	잘 모르는 사람이나 문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므로
③	문화다양성에 대해 배우거나 활동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④	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 좋은 일을 겪었으므로
⑤	타인을 존중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⑥	차별인지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⑦	기타(직접 쓰기)

■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영월군에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을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11. 영월군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관심이나 역량을 키워야 한다.
③	영월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④	영월군민이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⑤	새로운 문화적 자극과 예술적 활동이 필요하다.
⑥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⑦	기타(직접 쓰기)

■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질문	문항
성별	① 여 ② 남 ③ 무응답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영월 정주기간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0~20년 ④ 20~30년 ⑤ 30~40년 ⑥ 50년 이상 ⑦ 잠시 방문(관광, 출장 등)
주요 생활지역 (주거지역, 학교 등)	① 영월읍 ② 상동읍 ③ 산솔면 ④ 김삿갓면 ⑤ 북면 ⑥ 남면 ⑦ 한반도면 ⑧ 주천면 ⑨ 무릉도원면 ⑩ 영월 외
주요 직업	① 주부 ② 농부 ③ 문화 활동가 ④ 예술가 ⑤ 교육자 ⑥ 자영업자 ⑦ 직장인 ⑧ 학생 ⑨ 행정가 ⑩ 기타 ()